

조선후기 명부전 동자상 연구

指導教授 林 玲 愛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6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鄭 聖 恩

鄭聖恩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6月

< 목 차 >

I. 머리말	1
II. 조선후기 명부전 동자상의 조성 배경	4
1. <u>불교경전</u> 에 나타난 동자	4
2. 조선후기 명부전의 유행과 동자상	8
III. 조선후기 명부전 동자상의 배치와 현황	17
1. 명부전 조각의 배치와 동자상의 역할	17
2. 명부전 동자상의 시기별 현황	23
1) 17세기	26
2) 18세기, 19세기	39
IV. 조선후기 명부전 동자상의 지물과 상징성	43
1. 명부와 붓 그리고 벼루	44
2. 경판	46
3. 연꽃	49
4. 과일종류	51
5. 서수	56
6. 합장	59
V. 맺음말	61
참고문헌	65
도판목록 및 도판	69
Abstract	95

I. 머리말

명부전을 들여다보면 지장삼존과 시왕들, 그리고 이들의 권속들이 참배자를 맞아들인다. 이들 참배자들은 지옥이 비지 않으면 영원히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자비로움에 감사하게 되지만, 시왕들의 위엄 있는 모습과 명부를 든 사자들 그리고 험악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인왕상들의 모습에 조심스러워지고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그러한 긴장감을 풀게 하는 상들이 있으니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는 동자상이다. 이들 동자상들은 손에는 여러 가지 지물을 들고 살며시 미소를 띠거나 활짝 웃는 얼굴로 참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린 아이의 웃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웃게 하는 긍정적인 힘이 있다. 명부전 동자상은 선악善惡동자로서 인간의 선악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시왕에게 보고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자의 지물은 벼루나 붓 그리고 명부만을 들고 있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연꽃, 공양물 그리고 각종 서수와 놀고 있거나 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동자상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동자의 모습은 명부전이란 죽은 이의 극락천도를 비는 것 이 외에 혹 다른 것을 바랐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나아가 동자들의 지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이 글의 출발점이 되었다.

인간의 삶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은 지장보살신앙 및 시왕에 대한 연구 그리고 명부전과 명부신앙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¹⁾ 그러나 동자에 대한 언급은 그 비중이 크지 않았고, 시왕의

-
- 1) 김정희, 「고려말·조선전기 지장보살화의 고찰」 『고고미술』 157, 한국미술사학회, 1983, pp. 32-47
_____, 「조선시대의 명부신앙과 명부전 도상연구」 『미술사학집』, 1991. pp. 33-74
_____, 「고성옥천사 명부전 도상의 연구」 『정신문화연구』 통권 제32, pp. 254-278
_____, 「조선조 후기 지장보살화 연구」 『한국미술사논집』 1, 정신문화연구원, 1984 pp. 103-134
_____, 「19세기 지장보살화의 연구」 『불교미술』 12, 동국대학교박물관, 1994, pp. 141-175
_____, 「조선조 명종대의 불화연구」 『역사학보』 110, 1986, pp. 146-173
_____, 「조선시대 『불설팔관재계비밀구생정토심요』의 시왕관화」, 『미술사학연구』 201, pp. 41-73
_____,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권속을 그 일부라고 여겨졌던 동자에 대해 그들이 지닌 지물이나 동자 그 자체의 상징성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없었다. 물론 문수동자상에 대한 연구나 법을 찾아다니는 선재동자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이들은 법왕자法王子인 보살로 또는 선지식善知識의 동자로서 명부전 동자상과는 성격이 다른 존상이다. 그리고 명부전의 다른 존상들과 함께 동자상을 언급하더라도 불교경전의 의미에 담긴 순수 이미지의 동자로서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동자로서 설명하려고 했다.²⁾ 그러나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명부전의 동자는 도교의 시동 개념에서 들어온 동자로 다른 동자들과는 성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³⁾ 즉, 불교적 진리를 찾아나서는

안귀숙, 김정희, 「조선시대 시왕도연구」, 『조선조 불화의 연구(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박은경, 「마본불화의 출현」, 『미술사학연구』 199, 200합집, 1993, pp. 75-97

김태훈, 「한국 지장신앙의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2000

위우진, 「조선후기 한국 사찰의 전각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2003

전성원, 「조선후기 서남해안지역 사찰 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2

- 2) 여은경, 「한국 전통시대의 동자신앙」, 『역사교육논집』 권13-14, 1990. pp. 809-843 고려시대까지의 동자신앙에 대해 살펴본 내용으로 동자신앙이 시조탄생에까지 올라가는 오래된 역사를 지녔고, 민중의 메시아 신앙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문화재관리청, 『전국사찰 등소장동자상 조사보고서』 1991, 전국사찰에 있는 동자상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국립청주박물관 편, 『불교동자상』 도록, 2003, 전국사찰 및 박물관 등에 보관중인 동자상에 대한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조명렬, 「동자상으로 표현된 불교신앙」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 1999, pp. 241-258, 임진광, 「불교경전에 나타난 동자상」 『불교동자상』 청주박물관, 2003 동자와 동자의 명에 포함된 뜻과 설화에 나타난 동자를 중심으로 불교동자의 이미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춘실, 「조선시대 불교동자상」, 『불교동자상』, 2003 pp. 283-387 불교경전상의 동자의 의미 파악과 함께 조선후기 불교동자상에 대해 형식과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논문이다. 임영애, 「한국 조각의 동자 이미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도록, 2008 pp. 116-125, 동자상의 출현이 갖는 의미와 함께 죽음의 공간에서 공양하는 동자와 도교와 혼합되어 나타난 이미지로 동자의 이미지를 생각해본 글이다. 홍선표 「한국회화사의 아동상」 『동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도록, 2008, pp. 106-114 한국회화사에 보이는 동자이미지를 성탄聖誕의 화생동자와 사람들의 이상향을 파악한 글이다. 윤성규, 「조선후기 전남지방 사찰의 목조각에 관한 연구-화엄사 명부전내 지장보살상, 시왕, 인왕상 및 동자상을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1 동자상에 대해서는 일반론적인 설명 외에 덧붙이고 있지 않다. 최효순, 「불교경전에 나타난 아동선지식과 화엄보살도」, 동국대 석사학위, 2002 불교경전에 나타난 동자, 동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자의 의미를 선지식과 보살의 이미지로 파악하고 있다. 동자와 관련된 경전내용에 충실한 글이다. 그 외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문화유산발굴조사단의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II III·대전광역시·충청북도 편 등 각 도별 조사보고서가 도판과 함께 발원문이나 조상기, 그 외 관련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어 동자상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3) 조선후기란 두 차례의 왜란이 끝난 이후인 17세기 이후를 의미한다. 17세기는 각각 건립되었던 지장전과 시왕전이 명부전으로 통합되는 시기이고, 또한 명부전이 가장 많이 조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더불어 명부전내 동자상 조성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 역시 17세기이다.

순수 절대 진리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구도자나 보살의 모습보다는 명부전 조성이 활발하던 조선후기 그 당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상으로 그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II장에서는 불교 경전에서 언급된 동자들에 대한 개념과 동자들이 등장하는 구절을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동자에 대한 생각들을 알아보고, 동자상이 모셔진 명부전 조성이 유행했던 조선후기, 특히 17세기의 사회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명부전 동자상이 집중적으로 조성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명부전 동자상의 역할을 경전을 통해 알아보고, 현재 명부전에 모셔진 동자상 중 17세기라고 그 조성연대를 짐작하거나 알 수 있는 상을 중심으로 동자상의 형식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조선후기 중 특히 17세기를 연구의 중점적인 시기로 잡은 이유는 조선후기와 연결점이 되는 조선전기의 상들은 매우 적고, 현재 조성 연대가 분명하지 않는 동자상의 조성 연대를 정확히 알기가 매우 어렵다.⁴⁾ 그리하여 조선후기라고만 추정되고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동자상은 참고 도록에 추정된 시기를 통해 전체적인 형식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동자상이 지닌 지물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그 속에 담긴 사회적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동자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은 조선후기 특히 17세기 동자상 조성이 활발했던 전라도 지역의 사찰을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하고 그 외의 지역은 각종 보고서의 도록을 참고로 하였다.⁵⁾

4) 조선전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은 상원사 청량선원에 3구 (1467년 추정)와 그 외 통도사 정보박물관에 모셔진 상 및 중앙박물관에 보관된 몇 구의 상들이 있다. 현재 박물관이나 사찰에 있으나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 이들 상의 조성연대 추정을 위해 조성연대가 분명한 사찰의 상들의 특징과 비교하여야 하지만, 워낙 자유롭게 조성된 상이라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5) 구례화엄사, 영광불갑사, 고창선운사, 완주송광사, 완주위봉사, 김제금산사, 김제귀신사, 익산승림사, 논산쌍계사, 공주마곡사, 법주사, 김천직지사, 고성옥천사, 청도덕사, 등은 답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사찰이다. 참고로 한 도록은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문화유산발굴조사단의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대전광역시충청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II III, 강원도제주도, 문화재관리청, 『전국사찰등소장동자상 조사보고서』, 1987, 국립청주박물관 편, 『불교동자상』 2003 등이다.

II. 조선후기 명부전 동자상의 조성 배경

1. 불교경전에 나타난 동자

우리에게 익숙한 어린 아이에 대한 명칭은 아동이다. 즉 인간의 발달 단계로 볼 때 미성숙단계에 있으며 완전한 성숙을 위해 성인의 도움이나 성숙을 위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아동은 흔히 우리가 말하듯 발달단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입각하여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인간을 의미한다. 즉 신체의 성장의 과정에 있어 보여 지는 발달단계에 의해 아동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발달단계를 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 현대의 많은 사람들, 성인들도 아동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즉, 불교에서의 아동개념과 우리의 아동개념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⁶⁾ 이러한 아동에 대한 개념 차이는 『사동자삼매경四童子三昧經』에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리석으면 어린아이라고 견책하는 선사의善思義 동자이야기에서도 잘 알 수 있다.⁷⁾ 불교에서는 어린아이로 표현된 모습을 아동이라 표현하지 않고 동자라고 말한다.

동자는 범어로 쿠마라kumara 혹은 쿠마라카kumaraka라 하고, 한자로는 구마라鳩摩羅 · 구마라가鳩摩羅伽 등으로 음사한다. 보통은 4세 또는 8세 이상에서 20세 미만까지의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찰에서는 이 연령에 해당하고 출가를 하여 삭발을 하였으나 구족계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동아童兒, 동진童眞, 동남童男이라고 하고 여자아이는 동녀童女라고 한다.

6) 최효순, 앞의 논문, pp. 6-50, 불교에서의 동자동녀로 대표되는 아동이라는 개념 규정의 기준은 연령과 신체적인 성장 발달에 두기보다는 마음의 순수성, 구도를 향한 서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불법에 귀의하고 구도자로서의 조건을 구비하면 그것으로서 동자동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7) 최효순, 앞의 논문, pp. 79-80 『사동자삼매경四童子三昧經』에 아세세왕의 아들로 환생한 선사의善思義 동자가 계승의 일부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아세세왕의 어리석음과 그릇됨을 어린아이 같다고 알려주는 경문을 읊고 있다.

이러한 동자의 개념과 의미는 여러 경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에는 '오로지 불전을 염송하면서 삭발하기를 희망하고 필경에는 스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동자라라고 한다.'고 하였고,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는 '또한 동자와 같나니 4세 이상 20세 미만의 남자를 구마라가라 한다. 보살이 처음 보살의 집에 태어나는 것은 영아와 같고,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어 십주의 지위에 이르러 모든 악한 일을 여의는 것은 동자와 같기 때문에 구마라가의 경지라고 한다.'고 하여 동자란 나이가 어린 아이라는 것뿐 아니라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번역명의집翻譯名義集』에는 '구마라가, 혹은 구마라타라, 구마라부다라고도 한다. 동진, 호동, 동자 등으로 번역된다. 「훈문熏問」에 말하기를 안으로 참되고 항상된 도리를 증득하여 집착함이 없음이 마치 세속의 동자가 마음에 물들거나 애착함이 없이 천진난만한 것과 같으므로 법왕자法王子를 일컫는 말로 사용한다.'고 하여 법왕자인 보살을 동자에 비유하고 있어 보살의 화현化現으로서의 동자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동자가 보살의 화현이며 가장 이상적인 수행자임을 말한 경전으로 『대보적경大寶積經』을 들 수 있는데 '구마라가의 경지를 얻고자 어떤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하여 음욕을 끊을 때에 무상정등각에 이르기까지 항상 보살도를 실천하면 이를 구마라가의 경지라 부른다. 다음에 혹 어떤 보살이 발원하여 세세에 동남으로 출가하고 도를 실천하여 세간의 애욕을 받지 않으면 이를 구마라가의 경지라고 한다.'라 하였다.⁸⁾ 정리하면 보살은 원력에 의해 동자의 모습으로 태어나고⁹⁾, 동자의 원력으로 십주의 지위를 얻어 다시 보살도를 실천함을 말하고 있다. 즉 동자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아동의 개념으로 미성숙

8) 임진광, 앞의 논문, pp. 256-257 원문 재인용 『南海寄歸內法傳』(大正藏 卷 54), p. 220 中 "若專誦佛典 情希落髮 畢願緇衣 號爲童子", 『大智度論』(大正藏 卷 25), p. 275 中 "復次又如童子 過四歲以上 未滿二十 名爲鳩摩羅伽 若菩薩 初生菩薩家者 如嬰兒 得無生法忍 乃至十住地 離者惡事 名爲九摩羅伽也", 『翻譯名義集』(大正藏 卷 54), p. 1060 下, "鳩摩羅伽 云鳩摩羅伽駄 或云究磨羅浮多 比云童眞 亦云毫童 亦云童子 熏問云 內證眞常 而無取着 如世童子 心無染愛 卽法王子號也", 『大寶積經』(大正藏 卷 11), p. 547 中 "欲得鳩摩羅伽地者 或有菩薩從初發心斷淫慾 乃至阿耨多羅三藐三菩提 常行菩薩道 是名구마라가地 復次或有菩薩 作願世世童男出家行道 不受世間愛欲 是名爲鳩摩羅伽地",

9) 임진광, 앞의 논문, p. 256 보살이 원력으로 중생구제를 하기 위하여 일부러 받은 몸임을 말한다. 이와 다르게 보통 사람들은 과거의 업으로 인하여 과보를 감득한 몸으로 인간의 몸을 받게 된다.

단계의 인간이 아닌 불교의 진리를 잘 실천하는 이상적인 보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순수함의 상징과 구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동자의 모습은 보살 또는 선지식으로 대승경전, 인연담, 설화에 등장하고 있다.¹¹⁾ 이 외에도 사찰에서 법회나 의례를 보조하거나 큰 스님이 외출할 때 데리고 다니는 아이도 동자라고 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동자의 개념과 의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세 이상의 미혼 남자로서 스님이 될 것을 발원하고 있는 과정의 아이 둘째, 법왕인 부처님의 아들이란 뜻으로 보살인 법왕자 셋째, 불보살의 협시나 천계의 시동을 일컫는다.

불교경전에 나타난 동자들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불화나 상像의 동자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은 보살의 화현으로 표현된 동자상으로 문수보현동자상이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각각 석가모니의 좌우 협시보살로 문수보살은 지혜를, 보현보살은 지혜의 상징인 문수의 실천적 행원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조각상으로 표현될 때는 각각 코끼리와 사자 위에 연화좌를 올려 그 위에 앉아 연봉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흔히 사찰 입구에 있는 금강문이나 해탈문에 안치되어 있다.¹²⁾

보살의 화현은 아니나 역시 구도求道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실천자 모습의 선재동자가 있다. 선재동자는 『화엄경』 입법계품 제39에

10) 선지식이란 범어 kalyana-mitra로 정직하고 덕이 있는 친구를 가리키는 말로써 바르게 깨우치고 이끌어 이익이 되게 하는 유덕한 벗을 말한다.(망월불교대사전, 1974) 한역에서는 善知識 知識·眞善友·善友·親友·眞友 등으로 되는데, 보살의 의미가 상구보리上求菩提리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면 선지식 역시 보살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선재동자상의 성격을 보살이 범주에 넣었다. 조명렬, 앞의 논문, pp. 241-258,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동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보살은 곧 이상적인 인간상의 표현이고 동자로 화현함은 이상적인 인간상의 천진무구한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11) 최효순, 앞의 논문, p. 65-96 『대반야바라밀다경』 선현품의 만수실리 동자, 『지심범천소문경』 제1권에 등장하는 여러 동진보살들, 『불설아사세왕녀아술달보살경』의 아사세 왕의 12살 딸 아술달 등 아주 많은 경에서 동자·동녀의 이야기가 설해지고 있다. 이들 동자는 의 순수함과 때 묻지 않은 심성, 진리에 다가가려는 끊임없는 정진력 등을 가져 진리를 익히 깨달은 선지식과 화엄보살들이라 할 수 있다.

12) 도갑사에는 15세기로 추정되는 이른 시기의 나무로 조성된 문수, 보현 동자상이 있고, 그 외 구례 화엄사, 완주 송광사, 공주 마곡사, 보은 법주사, 김천 직지사 역시 사찰 입구에 해탈문과 금강문 등에 소조로 표현된 문수보현 동자상들이 모셔져 있다. 그러나 보은 법주사는 동자가 아닌 화려한 보관을 쓴 보살형으로 표현되었고, 김천 직지사는 상像이 아닌 벽화로 표현되었는데 그 모습이 지장보살의 모습과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 외 상원사 청량선원에 모셔진 문수동자상(1466년 작)이 있다.

나오는 대승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구도 실천행자로서,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행의 실천을 위해 선지식들을 찾아다닌다. 이러한 모습은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에 바다 한 가운데에 떠 있는 바위 위에서 관음보살을 향해 합장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¹³⁾ 현재 상원사 청량선원에 남아있는 동자상 1구도 이와 유사하여 아마도 선재동자를 상으로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¹⁴⁾ <삽도12. 참고> 현재 법주사의 원통보전에도 남순동자상이 모셔져 있다.

다음으로 연화화생의 동자 모습이다. 연화화생이란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불교미술에 표현한 것으로 일찍이 고구려 벽화에서부터 표현되기 시작하여 발해시대에는 불상의 광배에도 표현되었다.¹⁵⁾ 또한 고려시대에 많이 그려진 극락정토변에는 극락의 연꽃 위에 편 연꽃 속에 어린 아이의 모습이 표현되었고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에도 연꽃위에서 아미타삼존의 내영을 받는 왕생자의 모습이 동자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세 번째 동자의 모습은 보살과 여러 제천왕신의 협시공양동자상이다. 문수보살의 경우 독존으로 표현 될 때에는 여덟 명의 동자를 거느리는 것이 상례로 팔자문수공덕을 상징하고 있고, 건달바신왕의 권속으로도 15귀동자 등이 있다.¹⁶⁾ 그 외에도 산신·독성들과 함께 등장하는 시위동자가 있고,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명부전에서 죽은 죄인의 심판을 맡은 시왕을 보조하는 동자, 선악동자가 있다. 이 중 산신도, 나한도, 칠성도, 신중도 등에 표현된 동자는 다기, 복숭아, 수박, 영지 등 공

13) 조선시대 벽화에 그려진 선재동자는 고려시대와 달리 옷차림이 쌍상투에 단발머리를 하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포를 입고, 바지를 걸친 동자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 마곡사 대광보전의 뒷벽 백의관음도의 선재동자

14) 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북도편, 2006 법주사의 원통보전에 남순동자(1626년)상이 1구 있다. 두 손을 합장한 채 무릎을 꿇고 관음보살상을 바라보는데 쌍상투에 상의는 천의만 걸치고 하의는 무릎 위의 짧은 입었다. 대좌는 아주 화려하여 네 마리의 사좌가 받치고 있는 대좌 위에 연꽃 대좌를 다시 올리고 있다.

15) 정병모, 『회화』, 예경, p. 55 앞방과 날방을 통해 꾸준히 등장하는 연꽃봉오리에는 죽은 이가 서방극락에서 연꽃을 통해서 불·보살·천인 등의 이상적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기 바라는 연화화생의 기원이 담겨 있다. 서울대학교박물관, 『해동성국 발해』, 통천문화사, 2003 발해의 유적지 팔련성 제2사지에서 출토된 이불병좌상의 광배에 연화화상 쌍계를 한 동자상을 5구 표현하였다. 또한 사찰의 입구에 서 있는 사천왕의 보관에서도 연화화생의 표현이 보이고 있어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사찰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16) 임진광, 앞의 논문, pp. 270-271

양물을 들고 있거나, 부채를 들고 있기도 하고 나한이나 신선이 부리는 동물 곁에서 동물을 돌보거나 함께 노는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된다.¹⁷⁾ 신중도에서는 여럿이 무리지어 음악을 연주하는 주악천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머리에 연잎이나 모란 잎 또는 연꽃을 쓰고 있다.¹⁸⁾ 당시의 다양한 동자들의 모습은 조선후기 명부전 동자상 표현에도 나타나는데 연잎이나 연꽃을 쓴 동자상 그리고 다양한 지물을 든 동자상이 등장한다.¹⁹⁾

2. 조선후기 명부전의 유행과 동자상

조선후기는 변화의 양상이 두드러지는 시기로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와의 전환점에 위치하여 과도적 특성이 드러나는 시기이다. 즉 두 차례의 커다란 전쟁은 조선전기 사회를 이끌어오던 지배층에 대한 기층민의 불신감이 커지고 정부의 지배력 약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지만, 임란 후의 농업 경제 및 상업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농민층의 신분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가 생기고 역시 기층민의 의식이 성장하여 그 시대 문화의 주체로 떠오르고, 중세사회의 기반이었던 지주제와 신분제의 전면적 변동이 일어나는 격동적인 시기이다.

조선은 임란 이후 직접적인 인명피해 및 농경지의 황폐화로 고갈된 국가 경제를 위해 납속제를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²⁰⁾

17) 나한전 역시 동자상이 조성되었는데 현재 완주송광사 나한전의 동자는 땅은 머리에 포를 입고 나한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나 나한과 독립되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위봉사의 나한전 동자는 사자 등 위에 앉아있는 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익산 송림사의 동자는 지물이 대부분 분실된 상태라 어떤 것을 들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손에 무엇을 들었던 것처럼 두 손을 가슴 앞까지 들고 서 있는 상이다. 화방사 나한전의 두 동자상은 학을 안고 있거나 가지와 병을 들고 있는 상이다.

18)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 13, 2000 p. 108 도판53 금산사 미륵전 신중탱, 1890년 · 견본채색

19) 연잎을 쓴 동자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7세기(공주 마곡사 1677년)부터 보이고 있으나 연꽃을 머리에 쓴 상은 드물고 현재 봉원사 상 1구가 연잎을 쓰고 있는데 상의 조성시기가 19세기 후반으로 생각되어 비교적 늦은 편이다.

20) 전성원, 앞의 논문, p. 6 채인용, 선조실록, 권128, 선조 33년 8월의 기록에 의하면 임란 이후 전국적으로 150~170여만 곁에 이르던 농지가 30여만 곁으로 줄어들었다. 강만길, 『고쳐

납속제란 곡물이나 돈을 받고 납속한 자에게 일정한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로 하층민들에게는 신분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전공이 있는 자에게도 특전을 주어 면천의 기회가 있어 조선사회의 신분 제약이 약해지게 되었다.²¹⁾

그리고 전란이후 지속적인 농지복구 및 개간으로 농경지의 비율이 늘어나고 이양법 및 견종법의 전면적 보급, 농기구개량 및 수리시설의 보강과 문제와 더불어 농업발전의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²²⁾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농작물 생산량의 증대는 농민계층의 분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농민층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²³⁾ 또한 17세기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과 공장工匠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 참여, 그에 따른 상품의 생산과 공급, 임노동층의 증가, 지대의 금납화金納化 등은 이 시기 상법 발달로 이어져 서민계층의 경제력 성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민계층의 경제력 성장은 서민들이 17세기 이후 재건되는 많은 사찰의 시주자로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²⁴⁾

호국불교를 배경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은 승유억불정책의 나라였다. 건국 초 가장 필요한 것이 재정적 여건과 인구에 의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했던 조선은 철저하게 불교를 탄압하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p. 74 임진왜란의 경제적 피해는 전국적인 것이었으며 그 피해는 전국의 경작면적을 1/3으로 줄어들게 하고 농민들의 이농현상을 급증시켜 도시의 상공업인구를 증가시켰다.

21) 강만길, 앞의 책, pp. 125-127, 재인용 임진왜란중의 군공청軍功廳 보고에 의하면 "공사천인도 적 1명을 베면 면천하고 2명을 베면 우림위羽林衛에 소속되게 하고 3명을 베면 허통許通하고 4명을 베면 수문장을 제수하는 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미 허통되고 관직을 받았으면 사족士族이나 다를 것이 없으며 공사천뿐만 아니라 재인백정장인산척 등의 미천한 신분도 높은 관직으로 뛰어오른 자가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22)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편,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pp. 76-85, pp. 198 - 199

23) 강만길, 앞의 책, p79 p. 132

24) 전성원, 앞의 논문, pp. 21-34 조선 후기 사찰조영의 자본으로 크게 조선후기 인구증가와 생산력의 발달에서 비롯되어진 상업자본과 조선 왕실로부터 직접 지원된 자본 2가지로 구분하고, 두 왜란 후 사찰조영이 활발하던 17세기, 18세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넓은 평야와 강, 바다를 끼고 있어 상업자본이 발달한 서남해안 지역과 낙동강 지역의 사찰조영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했음을 말하고 있다.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p. 44-50 불서간행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16세기를 기준으로 시주자의 첫머리에 이전에서 보이던 왕족이나 實職을 가진 品官士族이 보이지 않고 주로 일반서민이 시주질의 대부분을 이루고, 17세기 말 이후가 되면 인명표기가 분명하지 못하고, 무질서해지며 시주자들의 계층성도 확인되지 않고, 납속품官納粟品官으로 추정되는 이름도 자주 거론이 된다고 한다. 이것 역시 시주층이 서민층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이다.

였다. 25) 또한 성리학으로 조선을 통치하기 시작한 지 200여년이 지난 16세기를 지나면서 조선 사회는 양반들의 결혼, 상속 등의 관행이 주자가례에 기준을 두고 남자위주로 차츰 바뀌어가고 있었고, 향약의 시행등과 관련되어 성리학적 질서가 전 사회에 퍼지게 되었다. 즉,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조선왕조 지배체제가 장기간 지속된 데 이어 사회 변동으로 인해 신분상승의 길이 다소 넓어지게 되어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인륜질서가 급속하게 농민들 속으로 확산되어 갔다. 26) 이러한 과정을 거친 조선후기 사회는 지방에도 철저한 유교의 보급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유교가 뿌리내려 백성들의 생활은 점차 성리학적인 것으로 바뀌어 사찰은 더욱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역불승유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불교사찰들은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를 비롯하여 영규, 사명당, 뇌묵대사 등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의승병義僧兵들의 활약으로 정부의 불교교단에 대한 인정을 이끌어 내고, 27) 나아가 승려들의 축성참여 및 모든 정부 공사에 참여하는 적극성, 수성守成을 책임지는 역할까지 승려들이 맡는 등 정부의 시책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자 조선 정부도 교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책으로 대 불교 정책을 바꾸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란으로 인해 마음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 위로해 줄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민중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나라와 불교사찰에서 많은 노력을 기

25) 김정희, 앞의 논문, 1991. p. 45 태종은 즉위하자 불교의 종파를 병합, 사찰의 수를 줄이고 도첩제를 실시하였고, 세종의 종단을 통폐합하여 선교양종으로 하고 양종 각 18개 사원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시켰으며, 1507년에는 승과제와 선교양종제禪敎를 폐지하는 등 정치적 불교탄압이 대대적으로 행하여졌다.

26)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사강의』, 한울아카데미, pp. 165-178 조선 건국 후 성리학적 사회윤리로 사회를 교화하려고 했던 노력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16세기 이후 사람들이 지방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되어서야 양반들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 예를 들어 고려말부터 수용된 『가례』 가운데 상례는 조선초기부터 특히 강조되었다. 그러나 불교식 장법인 화장의 풍습도 성종말경에 되어서야 자취를 감추었고, 가묘를 지어 3년상을 모시는 풍습도 연산군의 시절 단상短喪의 여부가 양반을 가르는 기준으로 직결되면서 가묘가 확산되었음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교식 상례의 핵심인 추전追薦(七七齋)은 16세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7) 김갑주, 「17,18세기 한일의 사원경제 비교연구」, 『논문집』 6,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1987 p. 70 재인용 의승병의 활약에 대한 기록으로 선조실록 권42, 선조 26년 9월 기미 선조의 비망기에 의하면 기록에 '유정의 승군은 용감하기 비교할 곳이 없다.'란 기록이 있고, 현종실록 권 17, 현종 10년 6월 신유 광주부윤 심지명의 말을 빌리면 '병자년의 득력은 승군이 최상이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승군의 활약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울이게 되는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많은 재齋를 거행하게 하거나²⁸⁾ 불전 안에 정도 신앙을 담은 불화들을 빠짐없이 걸어 두거나, 불전 내부의 분위기를 민중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도록 화려한 장엄을 하게 된다.²⁹⁾ 이로 인해 중흥의 계기를 마련한 불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전소된 사찰들의 복구 및 재건을 전국적으로 활발히 벌이게 되는데 그 불사의 주체는 왕실이나 국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민중들과 승려가 주체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³⁰⁾ 그리고 사찰 역시 좀 더 백성들 생활과 가까워지고 원활한 사찰 경영을 위해 17세기 이후 이루어진 많

- 28) 이강근, 「17세기 불전의 장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p. 20 재인용, 부휴 선수浮休 善修, “薦戰死亡靈疏” <부휴당대사집> 제5권)에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거두어 그 망령을 위로하는 천도제薦度齋를 불교교단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왕명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靜觀一禪, <정관집靜觀集> <한글대장경>164)에 수록된 “水陸疏”에서도 왜란과 역병, 흉년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은 당시 민중들의 혼을 삼보의 자비스런 힘에 의지하여 구제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남희숙, 앞의 논문, pp. 71-73 조선후기에 간행된 많은 불서들이 의식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심지어 참선 위주의 수행을 중시하는 禪家에서도 사찰 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천도제 의식을 정비한 休靜의 『운수단雲水壇』이라는 불교의식집을 편찬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종을 청하는 내용에서 육법공양에 선적인 요소를 더한 것이 보이고, 민간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영혼식迎魂式』과 『칠성정문七星講文』 등이 포함되어 있다. 17세기는 자연의 변화에 의한 재앙과 두 차례의 난으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했던 때라 국가가 해 줄 수 없는 사회위무社會慰撫를 담당한 불교로서는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복적 성향과 시주층의 기반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였다고 생각한다.
- 29) 이강근, 앞의 논문, pp. 19-20, 문화재청, 『완주 송광사 대웅전 수리보고서』, 2002, pp. 193-200 완주송광사의 천장 빗반자에는 일반 무속에서 볼 수 있는 색채 감각과 화려한 의복을 갖추고 횡적, 당비파, 나발을 연주하거나 바라, 북, 신도무 등을 추거나 천도天桃을 헌정하는, 전통적인 불가의 비천상은 아니나 총11점의 비천상이 그려져 있고, 반자에 연잎을 쓴 동자형 비천 3구, 물고기, 토끼와 거북이, 개, 염소 등이 장식되어 화려함과 함께 예배자가 있는 불전이 곧 극락임을 나타내고 있다.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의 불단 역시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코끼리, 천마, 사자, 연못풍경, 동자, 봉황, 기수괴어 등으로 꾸며져 있고, 마곡사의 대광보전, 논산쌍계사의 대웅전, 범주사의 팔상전 등 건물의 외부 역시 다포의 끝모양을 연꽃이나 봉황, 용 등의 모양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귀 공포 및 현판 좌우의 기둥머리를 용 모양으로 하여 반야용선을 연상하게 한다.
- 30) 이강근, 앞의 논문, p. 19 불사의 주체가 왕실이었던 경우는 대개 조선조 역대 왕실의 원당을 설치하였거나 선왕, 선후의 영정이나 위패가 모셔졌던 사찰 혹은 왕자의 출생을 빌었던 사원으로 선운사(1614-20), 해인사 대장경판고,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금산사 대적광전(1686년)의 창건이나 화엄사 각황전(1699년)의 재건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박병선, 「조선 후기 원당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 23 원당설립의 배경은 유교적 명분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이념과도 합치되어 유신들의 억불이념을 적당히 견제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왕실의 원당의 수는 102개, 가장 많은 봉안 대상은 선왕선후였다. 이정아, 「칠장사 오불회괘불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 77-81 칠장사 오불회괘불화의 화기를 살펴보면 양주(부부), 단주(혼자 시주한 이), 양위선가(돌아가신 부부)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 31 서민가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은 불사에서 민간신앙적인 면들을 수용한 전각들을 조성한다.³¹⁾ 그리고 주요 불전 외에 조성한 전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남해안 지역은 명부전을, 낙동강 주변의 사찰들은 산신각을 조성한다. 그러나 18세기를 넘어서면서 명부전은 전국적으로 조성이 된다.³²⁾

명부전冥府殿이란 전각 이름 그대로 죽음과 관계 깊은 공간이다. 죽은 자의 영혼이 7일마다 만나게 되는 시왕들에게 정성껏 복을 빌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극락으로 천도 할 수 있게 재를 지내는 공간이다. 동시에, 살아있는 '나 자신'의 극락왕생을 위해 미리 복을 비는 아주 현실적인 기복 공간이기도 하다.

명부전은 저승의 명부세계를 사찰 속에 옮겨 놓은 전각으로 지장삼존을 중심으로 명부시왕과 판관, 녹사, 동자, 장군 또는 인왕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한 전각 내에 지장삼존과 시왕이 복합적으로 모시게 된 시기는 조선후기이다. 조선후기 이전에도 지장전, 시왕전에 관한 기록이 보여 지장보살과 시왕에 대한 신앙은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신앙의 형태가 조선후기처럼 권선이나 기복적인 바람을 기원하는 것에 더 많은 무게를 두기보다는 순수한 참선이나 개인적인 수행을 위한 신앙의 형태로 존재했었다.³³⁾

31) 김현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교보문고, 1996, pp. 302-319 명부전, 칠성각, 산신각, 독성각 등이 사찰에서 수용한 민간신앙 수용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칠성각은 수명 장수신인 칠성을 봉안한 전각으로 원래 도교신앙과 관련 있고, 산신각은 토속신으로 호법신중의 하나로 삼아 불교를 보호하는 일부를 산신에게 부여하였다. 독성각은 나쁜존자를 모시는 전각으로 민중 고유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송원석, 「17세기 조선왕조의 조각승과 불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p. 7

32) 전성원, 앞의 논문, 표6 참고 이들 표에 나와 있는 사찰은 논문의 필자가 서남해안 지역 사찰의 특징을 알고자 당시 해운과 조운으로 발전한 지역 주변의 사찰을 대상으로 만든 표이다. 이들 사찰의 공통점은 명부전 동자상이 대부분이 남아있고, 조선후기 조운의 발달로 인해 어느 정도 시주를 할 수 있는 층이 발달한 지역의 사찰이다. 또한 인구의 집중 및 해난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사찰의 중간에 명부전 조성이 활발히 진행된 지역의 사찰이다. 위우진, 앞의 논문, 2003, pp. 84-87 전국의 92개 사찰의 부불전 영역을 조사한 결과 영산전 43개, 명부전 43개, 산신각29개, 칠성각 20개, 삼성각 19개, 관음전 12개, 약사전 8개가 조사되어 17세기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 조성되었던 명부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 지역에서 조성되었는데 그 이유로 재와 연관된 사찰의 경제적 경영, 불교의 대중화로 인한 기복적인 불교의 방향을 들고 있다. 특히 명부전 전각의 방향이 전라도는 서향을, 경상도는 동향을 하여 각기 바다를 바라봄을 당시의 해난사고와 연결 짓고 동시에 당시 시주층의 경제적 성향과 연관 짓고 있다.

33) 김정희 앞의 책, pp. 105-137, 김태훈, 앞의 논문, pp. 13-31, 한국의 지장신앙의 큰 흐름은 삼국시대에는 미륵신앙과 연결된 형태로 참회불교의 전개되고, 고려시대의 아미타의 정토신앙과 관련된 신앙은 원혼을 위로하거나 치병불사治病佛事의 기능도 갖게 되어 다소 그

명부전에 모셔진 지장보살은 지옥을 주거처로 삼아 무불세계인 오탁악세에서 말법시대의 중생을 대상으로 교화를 펼친다. 마지막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誓願을 세웠던 지장보살은, 『지장보살본원경地裝菩薩本願經』에 의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탑사에 공양을 베풀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한 효성스런 딸이 지장보살의 전신이라고도 한다.³⁴⁾ 즉 지장보살은 현세의 악업으로 인해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제도해 극락으로 인도해 주는 대자대비의 보살로, 사후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죽은 자를 위해 복을 주는 주요한 신앙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지장신앙은 당대唐代 후기가 되면 도가道家들의 지옥과 불교의 지옥을 연결시키는 시왕신앙과 만나고 두 사상은 결합되어 명부신앙이 형성된다. 명부신앙은 당 말에 이르러 편찬된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면서 지장보살과 시왕은 지옥의 구주로 널리 신앙되었다.³⁵⁾

지장보살과 함께 명부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시왕이다. 시왕은 불교와 도교에서 특별히 명부에서 죽은 자의 죄업을 심판하는 열 명의 대왕을 일컫는다.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에 의하면

성격이 변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불교신앙의 형태가 민간신앙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기에 지장신앙 역시 시왕신앙과 결합하여 명부신앙을 형성하여 지장보살은 사후세계의 주존이라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또한 효와 결합된 당시의 명부신앙은 불교존립의 확실한 근거가 되어주었다.

- 34) 『지장경』 「도리천궁신통품」 우리출판사, p. 138 「제가 미래세가 다하도록 해야될 수 없는 겁 동안 이 죄고를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시킨 연후에야 제 자신이 비로소 불도를 이루리이다.」 김정희, 앞의 책, pp. 61-66 지장보살 신앙의 형성과 성행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지장보살삼부경의 하나로 『지장경』, 『지장본원경』, 『지장본행경』, 『지장본서력경』이라고도 한다. 이 경은 『부모은중경』과 함께 불교의 효경이라 불리고 있다.
- 35) 안귀숙, 김정희, 앞의 논문, 1993, pp. 8-9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은 당대 성도부 대성자사의 사문인 장천이 찬술하였다고 전해진다. 원 제목은 『佛說閻羅王授記四衆逆修生七往生淨土經』이며 약칭하여 『불설예수시왕왕생칠경』, 『시왕생칠경』, 『시왕경』이라고도 한다. 전체적인 내용은 일체 중생은 사후 현세의 죄업에 따라 명부시왕의 재판에 의하여 죄고를 받아야 하며, 이 극대고뇌를 이탈하기 위하여 생전에 재공예배齋供禮拜를 미리 닦아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서, 석가모니부처님이 염라대왕에게 다음 생에 보현왕여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부분과 예수십왕칠제의 공덕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중심 내용은 망자를 심판하는 시왕의 명칭으로 현세에서의 죄를 속죄贖罪하는 종교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윤희, 「조선후기 명부불화 현왕도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7

사람들은 죽은 후 명부로 가는 도중에 초7일에서 7·7일까지 각각 7명의 시왕을 만나고, 백일, 1주기, 3회기까지 열 명의 시왕 앞을 지나면서 재판을 받는다 하였다. 이러한 사후 심판 사상은 불교의 중국 전래 이전에 장생불사長生不死를 강조하던 도교에 있었던 것이다. 현세의 선악행위에 의해 수명의 장단長短이 결정된다거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하늘에 보고하는 사과司過의 신이 있다는 도교의 믿음, 불교의 전파와 포교에 널리 활용되는 과정에서 불교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다.³⁶⁾ 이렇게 불교의 명부신앙에 포함된 도교의 영향은 조선후기 명부전 동자상의 지물 종류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지장신앙과 시왕 신앙의 결합체인 명부신앙은 고려시대 『예수시왕생칠경』이 전래되면서 들어오는데, 그 이전 명부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삼국유사』의 「선율환생조」이다.³⁷⁾ 가족들의 추선공양道善供養으로 죽은 이가 전생처轉生處를 얻게 되는 불교의 생사관이 반영된 이야기이나 아직 시왕에 대한 신앙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왕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은 『고려사』 세가世家의 「김치양조金致陽條」에 시왕사를 건립하여 모신 시왕도의 도상이 괴이하고 형용하기 어려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10세기 말 ~ 11세기경에는 시왕을 본존으로 하는 사찰이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매우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³⁸⁾ 현재 합천해인사에 고려시대 작품인 『예수시왕생칠경』의 목판변상도가 2종류 전해져 당시 시왕도의 내용 및 시왕사상을 짐작하게 한다.³⁹⁾ 조

36)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pp. 64-65 고려시대에 유행한 수경신守庚神의 풍습이 도교의 사과신司過神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깊는데 이 풍습은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지켜지다가 영조대에 가셔야 폐지되었다. 오늘날 설날 그믐날의 밤을 새는 풍습도 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37) 이재호 역, 『삼국유사』, 명지대학교출판부, p159-161 망덕사의 중 선율이 지옥에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로 생전 반야경을 필사한 공덕으로 명부에서 되돌아오게 되고, 명부에서 돌아오는 도중 만난 여인의 부탁으로 가족들의 추선공양이 이루어진다. 그 공덕으로 죽은 이가 전생처轉生處를 얻게 된다.

38) 김정희, 앞의 책 pp. 161-164 재인용, 『고려사』에 보이는 지장사,시왕사,지장사,시왕당 등이 보이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고려사』 세가世家 11 숙종 7년 9월 정유조丁酉條, 『고려사』 열전列傳 卷第十七 徐熙條, 『고려사』 세가世家 卷第三十八 공민왕 元年(1352), 『고려사』 절요 卷之三十三 辛禩 14년(1388년) 6월조, 『고려사』 세가 11 숙종 7년 9월 정유조 등이 있고, 그 외에 李穡의 「寶蓋山地藏寺重修記」,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개성부 상 불우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대구도호부 佛宇條,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7 철원도호부 불우조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39) 문화재관리국, 『전국사찰목록판본집』, 1987 pp. 404-406, 김정희 앞의 책, p. 127 도판

선 초기 강력한 불교탄압정책으로 매우 위축된 불교는 앞 시대의 귀족적인 신앙형태를 벗어나 한층 민간신앙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고 특히 양란을 겪은 후 명부신앙이 추선공덕追善功德과 영가천도靈駕遷度を 위한 신앙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된다.⁴⁰⁾

이렇게 추선공덕과 영가천도를 위한 신앙으로 자리 잡은 조선후기 명부신앙의 유행의 바탕에는 조선의 국가 이념인 '효'사상이 깔려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두 차례의 전란으로 많은 사람들은 무구한 죽음을 목격하고는 그 속에서 감내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의 비참함을 겪었을 것이다.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렸던 유교는 기본 질서로서 자리를 잡아 모든 생활의 준거는 되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줄 답은 선명하게 알려줄 수 없었다. 공자는 『논어』에서 죽음이나 상례喪禮에 대해 서른여덟 번이나 언급하였지만, 죽음 자체나 죽음에 국한된 형이상학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속윤리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에서 출발하여 장례예절의 여러 규범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즉, 죽음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살아계실 때 처럼 사후에도 효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상례와 제례를 중요시하였다.⁴¹⁾ 즉,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간의 상복을 입고, 첫 기일을 소상, 두 번째 기일을 대상이라 하여 상례를 치르는데, 대상을 마쳐야 사령死靈이 조령祖靈이 되어 가묘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된다. 유교에 있어서 제사란 바로 생전의 효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불교에서와 같이 사

25, p. 142-147 도판 30.1-31.4 『예수시왕생칠경』 변상도, 고려, 목판본, 보물734-3호, 경남합천해인사 소장, 변상도의 오른쪽에는 각 대왕에 대한 찬문을 적어두고, 가운데에는 탁자에 앉은 시왕과 그 좌우로 동자, 판관, 옥졸 등의 권속과 경전이나 불상을 들고 서 있는 공양자들이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다. 크게 표현된 공양자의 모습에서 추선공양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고려불화(지장시왕도, 고려, 일본 정가당문고미술관 소장)에도 지장보살 아래에 서 있는 시왕들과 판관들의 모습에서 당시 시왕사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40) 김정희, 앞의 책, p. 137, pp. 160-168 조선시대에 들어와 전각의 명칭이 지장전이 아닌 명부전이라는 것, 고려시대에는 지장시왕도 뿐 아니라 단독상이 많이 조성된 반면 조선조에 조성된 지장보살도는 거의 대부분 지옥의 시왕 및 지옥과 관련된 여러 권속들을 대동한 지장시왕도의 형태라는 점에서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지장보살에 대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시왕들과 결합된 명부신앙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쌍세전, 업경전, 영원전, 명왕전, 시전, 명전, 무사전 등의 명칭을 사용하나 명부전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41) 양한빛, 「한국인의 죽음과 고찰」,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양한빛, 2004, p. 28

자의 명복을 빌고 영가를 천도遷度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에 불교의 천도재遷度齋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예수시왕생칠경』에 의하면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중음中陰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새로운 생을 얻게 되고, 49재 역시 죽은 이의 명복을 빌고 영가천도하는 의식으로 효를 강조한 조선사회의 요구와 일치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명부전의 주존인 지장보살과 연관된 『지장시왕본원경地裝菩薩本願經』은 지장보살의 대원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천도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말해주어 ‘효경’ 이라고도 불린다. 그 외 『우란분경』에 나오는 목련존자가 지옥에 계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행한 우란분 봉행도 효에 관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이러한 당시 분위기는 조선후기 대표적 효경인 『부모은중경』이 17세기 초 변상도가 그려지고 한글 본으로 인쇄되어 널리 농민들에게 유포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⁴²⁾

그 외에도 조선후기에 유행했던 민간도교의 권선사상 역시 명부신앙의 유행에 많은 영향을 준다. 조선시대 성현의 『용재총화』에 의하면 소격서에서 시왕을 예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일찍이 우리나라에는 고려중기경에 전해지기 시작한 권선서勸善書 종류가 한말까지 전래되어 각종 번각과 언문 해석이 나왔다. 소박한 기복적 취지와 실천 가능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권선서는 민간 대중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고, 권선징악을 주장하는 시왕사상이 널리 성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⁴³⁾

앞에서 설명되어진 조선후기 명부신앙의 유행의 원인을 정리해 보면 첫째 전란으로 인한 민중들의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위한 많은 재齋의 성행, 둘째 불교의 대중화로 인한 기복적 성향, 셋째 효사상과 일치하였던 당시 불교의 천도재의 공덕, 도교의 권선사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42) 청도 덕사의 지장보살 복장전적으로 『법화경』, 『불설아미타경』, 『불설대보은부모은중경』,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등이 있다.

43) 정재서, 앞의 책, pp. 35-39, p. 131, p. 135

Ⅲ. 조선후기 명부전 동자상의 배치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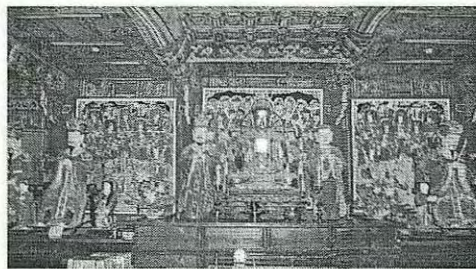
1. 명부전 조각의 배치와 동자의 역할

명부전은 저층의 명부세계를 사찰 속에 옮겨 놓은 전각으로 일반적인 그 구조를 살펴보면 지장삼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5명의 명부시왕, 동자, 귀왕, 판관, 녹사, 인왕 또는 장군을 마주보게 배치하고 있다.⁴⁴⁾ 이 중 동자상의 위치는 지장삼존의 좌우에 1구, 그리고 각 시왕의 좌우에 1구씩 또는 시왕 좌우에만 각각 1구씩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모두 12구 내지는 10구의 상이 배치가 된다. <삽도1,2> 허나 상의 크기가 작아 사찰마다 분실이 많은 이유로 12구가 완전히 배치된 곳은 드물고, 더 이상의 분실을 막기 위해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동자상을 보관하고 있는 사찰이 많아 명부전을 찾더라도 동자상을 직접 보기가 힘든 현실이다.⁴⁵⁾ 그리고 발원문이나 조성기를 통해 시주자를 살펴보면 명부전의 다른 상들은 제1진광왕 시주 00, 제2초강왕 시주 00처럼 표기되어 정확히 몇 구의 상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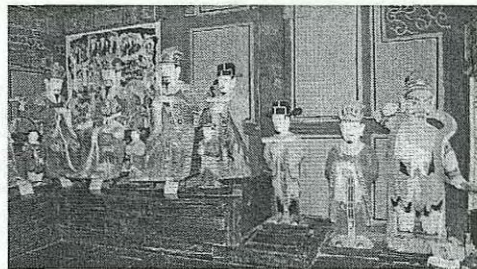
44) 본존인 지장보살은 좌상으로, 좌우 협시인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은 입상으로 표현한다. 이 중 도명존자는 승려의 모습으로 무독귀왕은 관리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대부분 합장을 하고 있다. 일부 사찰에서는 무독귀왕의 공수한 손 위에 상자를 있다. 김정희 앞의 책, pp. 87-101, 김두재 옮김, 시왕경, 성문출판사, 2006, pp. 64-83 도판 참고 명부를 다스리는 시왕은 제 1 진광대왕, 제2 초강대왕, 제3 송제대왕, 제4 오관대왕, 제5 염라대왕, 제6 변성대왕, 제7 태산대왕, 제8 평등대왕, 제9 도시대왕, 제10 오도전륜대왕으로 이들 시왕의 명칭이나 지옥에서의 심판 광경 등은 당말에 이르러 『예수시왕생칠경』이 성립된 이후 정립되었는데 죽은 후 7·7일마다, 100일, 1년, 3년에 만나게 된다. 각각의 시왕은 판관 4-5명, 장군 1-2명, 귀왕 3-4명, 주선동자 주악동자, 사자 1-2명 등의 권속을 거느리게 되고, 주선동자 주악동자 각기 1명을 제외하고는 각기 다른 이름의 판관, 귀왕과 사자를 거느린다. 시왕들이 머리에 썼던 관들을 살펴보면 제왕들이 쓰는 원류관을 쓰고, 옷은 관복을 입었다. 즉, 왕이라는 지위를 상징하는 관과 지하세계 역시 지상과 마찬가지로 다스리는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관리들의 옷들을 받아들였고, 조선후대에 가면 가슴에 흉배가 그려진 것도 볼 수 있다. 많은 사찰들이 장군상의 위치에 장군 대신 인왕상을 배치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한 쌍의 인왕은 서로 마주보게 한쪽 손을 올린 자세가 석굴암의 인왕상의 자세와 비슷하였다.

45) 예를 들면 고창 선운사나 익산 송림사, 논산 쌍계사의 경우는 2구 내지 4구가 남아있고, 전남 불갑사는 동지 사시 예를 때나 팔상전에 보관된 동자상을 볼 수 있고, 경북 불영사의 동자상은 볼 수 있는 날을 알 수 없었다. 그나마 잘 남아 있는 곳은 구례화엄사, 공주마곡사, 청도 덕사의 경우로 8구에서 10구가 남아있다.

상의 경우 단순히 동자 시주 00라고만 적혀있어 동자상 시주자 수만 가지고 정확하게 몇 구의 동자상이 조성되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⁴⁶⁾ 비교적 조성 시기가 이른 영광 불갑사의 경우 동자상 시주자에 대한 언급이 6명 기록되어 있고 또한 현재 6구의 동자가 남아있다. 하여 처음부터 조성된 동자수가 6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의 6구는 4구가 분실된 상태라 한다.⁴⁷⁾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보면 명부전 내 동자상 수는 동자상의 조성이 활발히 시작되던 17세기부터 12구나 10구의 상이 정형화된 일반적인 상의 수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일부이긴 하나 고성 옥천사 동자상처럼 대좌에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매겨 있거나 화방사 나한전 동자상처럼 좌, 우라는 글씨가 대좌에 새겨져 있어 사찰 나름대로 동자를 놓는 위치를 정해두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허나 동자상의 크기가 크지 않아 자리 이동이 쉽고, 사찰마다 동자가 지니고 있는 지물의 종류가 각기 다르므로 10구의 시왕과 그 앞에 놓여진 동자상과의 일정한 규칙을 찾기도 어렵다.⁴⁸⁾



삽도 1. 화엄사 명부전(1636년) 조각



삽도 2. 화엄사 명부전(1636년)조각

46) 문화재청(재)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I·II·III 자료집 p. 284 도림사 시왕의 좌상(우3) 발원문에 의하면 1690년 지장삼존과 함께 동자도 조성되었다. 동자상 시주자가 11부분이나 언급되어 다른 사찰에 비하면 동자상 시주자가 매우 많은 편이다. 다만, 시왕이나 지장삼존처럼 동자 역시 각기 가진 이름이 있다면 정확한 동자수를 알 수 있겠으나 단순히 동자 시주 00양주 또는 00비구라고만 언급되어 있어 몇 구의 동자가 조성되었는지 알기가 어렵다. 또한 사찰에 따라 시주자가 일정하지 않아 당시 일반적인 동자수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동자상의 크기가 다른 상에 비해 적었기에(크기가 작다고 할 수 없는 화엄사의 경우도 시왕의 1/2 또는 1/3정도이다.) 한 사람의 시주자가 여러 구의 동자를 조성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사찰마다 정해진 동자상의 수가 없고 시주자 수만큼 동자상을 조성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또한 청도 덕사의 경우처럼 현재 동자상은 있는데 동자상 시주자가 명시되지 않은 발원문이나 조성기도 다수 있어 정확한 당시의 상황을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도림사에는 동자상이 남아있지 않다.

47) 김춘실, 앞의 논문, p. 290

명부시왕의 소의경전이라 할 수 있는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에 의하면 명부전 동자는 주선注善동자·주악注惡동자로 그 명칭처럼 인간의 선악행위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일을 담당한다. 시왕의 권속인 동자는 시왕이 죄인의 죄의 경중을 가늠할 때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⁴⁹⁾ 현재 해인사에 보관중인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 변상도(1246년)에 표현된 동자의 모습은 쌍상투에 소매가 긴 대수포大袖袍를 입고 두루마리형 명부를 받들고 시왕의 좌우에 서 있거나,⁵⁰⁾ 두 손을 공수하여 대수포에 넣은 채 시왕의 다른 권속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⁵¹⁾ 이러한 모습을 조선시대 목판본의 변상도에도 거의 변화가 없이 나타난다. <삽도 3>



삽도3.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豫修十王生七經』 변상도, 고려(1246년), 목판본, 21.3×59(세로×가로), 보물 734-3호, 해인사 소장

그러나 불교에서 명부전 동자는 선악동자善惡(주선注善동자·주악注惡동자)로 알려져 있지 않았고, 『화엄경』(60권) 제44 입법계품과 길장의 『무량수경의소』, 『불설地藏菩薩發心因緣十王經』 등에 동생신同生神 혹은 동명신同名神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⁵²⁾ 돈황에서 출토된

48)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113

49) 지장삼존을 제외한 명부전 조각상의 역할은 모두 시왕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판관 역시 시왕을 대신하여 죄인을 직접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고, 사자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그 집으로 달려가 그 사람의 선악에 대해 기록한 명부를 명부로 가져오거나, 평소에 정월, 5월, 9월의 십제일에 인간세계에 나가 선복을 지은 이와 악한 죄를 지은 이를 살펴 염라대왕에게 보고하는 일을 한다. 그리하여 판관, 사자 역시 명부를 들고, 동자와 같이 시왕을 돕는 역할을 한다.

50) 대수포大袖袍란 소매가 매우 넓은 포를 의미한다.

51) 문화재관리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1987, p. 240 pp. 405-406

975년명 관세음보살도에는 커다란 두루마리를 든 악업동자와 선업동자가 합장한 채 좌우 협시로 시립하고 있어 이른 시기부터 선악동자의 도상이 성립되었음을 보여 준다. 역시 돈황 출토의 9세기 후반 ~ 10세기 초의 시왕경도권에서도 반드시 선악동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명부와 관련된 동자의 역할이 이른 시기부터 정형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⁵³⁾ 이밖에 도교서인 『태상동현령보업보인연경太上天靈寶業報因緣經』, 『포박자抱朴子』 나⁵⁴⁾ 『사천왕경四天王經』 등에도⁵⁵⁾ 동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명부시왕의 소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에서는 동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52) 김두재 옮김, 지장경, 성문출판사, 2006, p. 118, 「爾時 同生神 從座而起 合掌向佛 設是偈言」 중략...

운허스님 저술, 동국역경원 편찬, 불교사전, <http://ebti.dongguk.ac.kr/> 참고 同名神(동명신) - 구생신(俱生神)의 하나. 동명천(同名天)이라고도 한다. 모든 중생의 왼쪽 어깨 위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그 사람의 선업(善業)을 기록한다는 남신(男神)/ 同生神(동생신) - 구생신(俱生神)의 하나. 또는 동생천(同生天). 모든 중생의 오른쪽 어깨 위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그 사람의 악업을 기록한다는 여신(女神). ⇒구생신俱生神 / 구생신【범】 Soha-deva 그 사람과 함께 나서 항상 그 사람의 양쪽 어깨 위에 있으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악의 행위를 기록하여, 죽은 뒤에 염마왕에게 아뢴다는 두 신. ⇒동명신(同名神) · 동생신(同生神) · 양견신(兩肩神)

53) 김정희, 앞의 책, pp. 77-80, p194 도판 9-12, 56 참고, 돈황에서 출토된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 변상도에 나오는 동자는 시왕의 곁에 좌우로 한 명씩 표현되고 쌍상투를 정수리가 아닌 귀 아래에 하고 소매가 넓은 대수포를 입고 있다. 두 손을 모아 가슴 높이까지 들고 있는데 동녀같다.

54) 이공술, 「태상감응편의 효사상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3, p. 37 재인용 「... 중략 천지에는 인간의 허물을 관장하는 사과신司過神이 있는데 사람이 범하는 잘못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그 산을 빼앗는다. 그 산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은 가난해지고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자주 우환과 만나게 되고, 산이 다하게 되면 사람은 죽는다..... 중략 몸 가운데는 살시가 있는데 삼시라고 하는 것은 비록 형체는 없으나 사실은 영혼이나 귀신의 부류이다. 중략 매번 경신일이 되면 문득 하늘로 올라 사명司命에게 아뢰어 사람이 행한 바 과실을 말한다. 큰 것은 紀를 빼앗는데, 기라는 것은 3백일이다. 작은 것은 算을 빼앗는데 산이란 것은 3일이다. 나 또한 이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능히 알지 못한다.」 라고 하여 도교에서는 권선이 복록福祿과 장수長壽와 연결됨을 강조하고 있다. 밀줄은 임의로 그은 것임.

55) <http://www.sutra.re.kr/>, <http://ebti.dongguk.ac.kr/> 불설사천왕경(佛說四天王經) 1권. K-856(20-1205). T-590(15-118). 유송(劉宋) 시대(A.D. 427) 번역. [역] 보운(寶雲), 지엄(智嚴). 「... 부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매달 6제일에는 4천왕이 여러 천신들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중생들이 지은 선악을 살핀다고 말하였다. 6제일이란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이다. 4천왕들이 중생의 선악 행위를 살펴본 다음에는 제석천왕에게 보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되거나 재난과 질병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기도 한다. 특히 악한 행위를 지은 경우에는 불행한 과보를 받게 되지만, 일단 자신의 행위를 참회하고 바르게 살 경우에는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선악의 과보가 엄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경이다. 여기에서는 동자의 역할을 태자가 한다고 언급되고 있다.

"만일 선남자 · 선여인 · 비구 · 비구니 · 청신자 · 청신녀 · 가운데 살아 생전에 예수칠재를 지내는 사람이 있어 매달 초하루와 보름, 두 차례에 걸쳐 불·법·승 삼보 앞에 공양 올리고, 기원할 시왕단을 설치하고 시왕에게 기도하되 주소 생년 이름을 써서 소와 축원장에 넣고 육조에게 고하면, 선업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선업동자가 천조지부관 등에게 보고하고 나서 재를 지낸 사람의 이름을 저승명부에 기록해 둔다."

하여 동자가 인간의 생활을 하늘에 고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인간의 죄상을 기록한 업부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장보살발심인연시왕생칠경』에서는 '선동자는 증명하나니. 지은 죄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네. 선동자가 귀 기울여 착한 일 한 것 들으면 아주 작은 선업도 기록되지 않는 일 없네. 악동자는 증명하나니. 지은 죄 메아리가 호응하는 것과 같다네. 악동자가 눈길 주어 악한 죄 지은 것 보게 되면 조그만 악한 죄업도 빠짐없이 기록한다오.' 라고 하여 명부신앙과 관련된 선악동자의 역할과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⁵⁶⁾

위와 같이 사람의 선악을 기록하는 역할에 의해 주선동자·주악동자 또는 선부동자·악부동자라 불리게 된 선악동자는 고려시대의 명부도상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조선시대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 18세기 말 ~ 19세기 지장보살도에서 지장보살 아래 선악동자가 크게 묘사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이르러 권선징악적인 윤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⁷⁾ < 삽도 4, 5 >



56) 김두제, 앞의 책, p. 21, pp. 113-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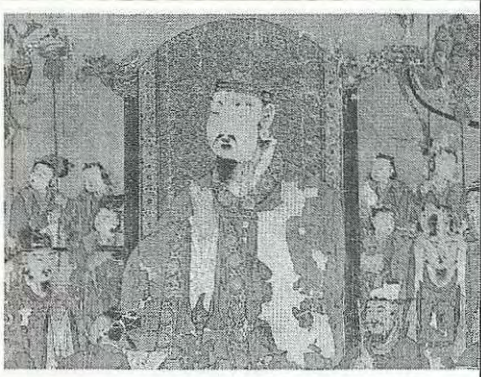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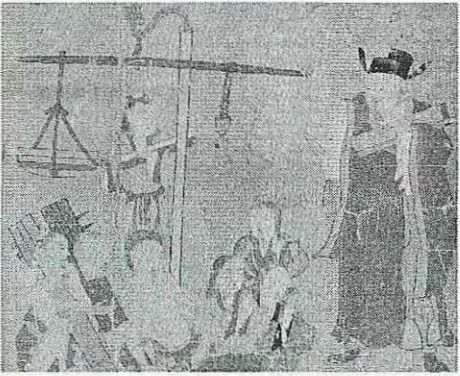
명부전 동자들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왕탱이다. 이들 시왕탱에 등장하는 동자의 머리 모습을 살펴보면 정수리에 쌍상투를 하고⁵⁸⁾ 쌍상투 아래로는 단발형의 머리를 한 형태가 가장 많이 보이고, 등 뒤로 길게 뻗은 머리도 있다.⁵⁹⁾ 윗옷은 직령이나 단령의 포로서 발목까지 오는 길이에 허리 아래로 양 옆이 트였고, 가슴 부근에서 허리까지 오는 옷을 묶은 형태로 걸쳤다.⁶⁰⁾ 허리에는 포 고정띠가 발목 아래로 길게 내려져 있고 하의는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머리에 연잎을 쓰거나 꽃잎을 쓴 동자의 모습은 상像으로 만들어졌으나 시왕탱에는 보이지 않고, 신중탱이나 산신도에서 볼 수 있다. 이들 시왕탱에서 동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경전의 내용을 충실히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시왕의 좌우에 서서 명부나 공양물 또는 보개寶蓋를 들고 서 있는 시동의 역할 말고도, 판관의 일을 돕는다. 즉, 판관이 업칭業秤으로 죄인의 죄를 달 때 선박善薄과 악박惡薄을 업칭에 올려두거나, 판관이 기록하는 내용을 돕기 위해 벼루를 들고 있거나 명부를 들어주는 역할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지옥의 구세주인 지장보살의 곁에서 역시 보개를 들고 있기도 하다. <삽도 6-9 >

57) 김정희, 앞의 책, pp. 192-194 지장시왕도 뿐 아니라 청암사 수도암 산신탱(1864년 작)에도 이부동자가 표현되어 있어 사회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있는 권선사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들 동자의 지물은 印과 杖이다.

58) 김기선, 「조선시대 동자복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pp35-38 쌍상투雙髻는 중국 동남동녀의 전통적인 머리 형태로 머리를 양쪽으로 나누어 총을 이용하여 정수리 좌우에 각각 한 개씩 뿔 모양의 상투를 만드는 머리 형태이다. 머리를 땋기 전에 어린아이의 털 자란 머리를 거두기 위해 행해진 자연스러운 머리 형태였던 쌍상투는 중국에서는 미관례자未冠者임을 나타내는 머리 형태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머리 형태는 아니었으나 주자가례가 들어와 예의를 존중했던 왕실이나 일부 사대부 집안에서는 미관례자未冠禮者인 동자에게 쌍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조선말까지도 쌍계를 집안의 아이에게 유지했던 경우도 있다. 쌍상투가 조선 시대 어린 아이의 보편적인 머리 형태는 아니었으나 조선후기에 그려진 풍속화에도 어린 남자 아이의 머리는 쌍상투를 하고 있고 당시 유행한 백동자도나 관분양행락도 등에도 역시 여전히 쌍계를 그린 것으로 보아 쌍상투란 관념 속의 어린 아이의 상징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59) 이정옥, 『관례복식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 총서, 1990, pp. 55-56 땋은 머리는 우리나라의 기본머리 형태로서 단군 원년부터 기록이 보이기 시작하여 삼국시대에도 여자들의 변발(땋은 머리)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고려시대에 들어 몽고식 변발의 영향을 받았다하나 이것과는 형태가 다르게 조선시대까지 그 풍습이 이어진다. 조선 말 땋은 머리에 대해 오랑캐의 풍속이라 쌍상투로 바꾸자는 기록이 남아있다.

60) 여기서 포란 윗옷과 아래옷이 붙은 형태로 대개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의미하고 직령과 단령은 깃의 형태를 의미한다.

	
삽도 6. 시왕탱(제9도시대왕 부분도), 국립중앙박물관, 18세기	삽도 7. 시왕탱(제9도시대왕 부분도), 18세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삽도 8. 시왕탱 (제4오관대왕 부분도) 18세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삽도 9. 시왕탱(제7태산대왕, 부분도) 18세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2. 명부전 동자상의 시기별 현황

동자상의 조성은 명부전 조성이 활발하던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꾸준히 조성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조성시기가 17세기로 밝혀진 동자상들은 비교적 많으나 조성시기가 18세기, 19세기라고 밝혀진 동자상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17세기는 두 차례의 임란 후에 활발히 사찰의 증수가 이루어진 시기로 명부전 조성과 함께 동자상 조상造像활동 또

한 활발했을 것이다. 또한 조선전기와는 다르게 다수가 참여하는 불사가 많아지고 작은 시주라도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 종교적 신심을 이끌어 내거나 앞으로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의도에서 발원문이나 조성기 등의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동자상의 분실이나 파손이 생겨야 다시 조성하게 되고, 분실된 한 두 구의 동자상을 조성할 때 다시 기록을 남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18세기, 19세기의 조성 기록이 17세기에 비해 적게 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비교적 조성연대가 분명한 17세기의 동자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조성연대가 18세기, 19세기라 추정되는 것은 연대가 비교적 분명한 사찰의 동자상과 비교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고자 한다.

동자상 조성 시기는 명부전 내 상들의 조성기造成記나 복장발원문을 참고하고 혹은 동자상이 안치된 명부전의 건립연대를 가지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완주송광사의 경우도 명부전 완성 시기와 그 안에 안치되는 상들의 조성시기가 8년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명부전 조성시기보다 조금 늦은 시기를 동자상의 조성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⁶¹⁾ 그리고 시왕조성기를 기준으로 삼은 경우 동자상 시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조성기도 있었지만 이 역시 시왕의 조성시기를 동자상 조성시기로 생각하였다.

먼저 17세기 이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조선전기 상들에 대해 살펴보면 상원사 청량선원에 모셔진 3구의 동자상을 들 수 있다. 상원사 문수동자상이 만들어진 1460년대의 같은 작품이라 생각되는 동자상으로 크기가 52-57cm다. 17세기 상들과 비교해 볼 때 작은 상인데 당당한 느낌을 준다. 우선 2구는 쌍상투에 얼굴은 방형이나 볼과 턱, 이마에 살이 올라 원만한 얼굴상을 만들고 있으며, 삼도가 표시되어 있다. 쌍상투를 한 2구는 좌우로 연봉을 들고 서 있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미소를 짓고 있다. 이 중 1구는 눈도 함께 얹고 웃고 있으며 어깨에는

61) 이장근, 앞의 논문, pp. 64-68 17세기는 사찰의 중건이 활발하던 시기이지만 일부 왕실 중심의 후원이나 벼슬을 가진 권력자의 후원을 제외하고는 일반 백성들의 시주자를 중심으로 불사가 이루어진 사찰의 재건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재건의 시기가 길게는 1세기를 두고 차근차근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에 대개는 전각의 건립시기와 상의 조성시기가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예를 들면 선운사의 경우 가람이 완성되는데 81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다.

운건을 걸치고 있다. 쌍상투의 2구는 모두 긴 포와 함께 천의를 걸치고 허리에는 덧치마를 입었다.⁶²⁾ 허리에는 덧치마를 고정하는 화형花形 장식에 붙어있고 그 아래로 하의가 드러난다. 여러 겹으로 입은 옷들의 선이 유려하게 표현되고 겹쳐 입은 옷의 두께감과 무게감이 느껴진다. 2구 모두 맨발에 연봉을 들었는데 폭이 좁은 긴 연잎받침에 긴 연봉을 꽂아 들고 있다. 나머지 1구는 그 형상으로 보아 선재동자상이라 생각된다. 짧은 머리에 합장을 한 채 고요한 표정으로 약간 위쪽을 바라보고 있다.⁶³⁾ 귀와 손목에 장신을 하고 상의는 천의와 그 형태가 조끼와 유사한 반비형태의 옷을 걸치고 하의는 맨발에 짧은 치마를 걸쳤으나 역시 덧치마를 입었다.⁶⁴⁾ 바다 한 가운데 있는 보타락가산의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선재동자상으로 생각된다. <삽도 10-12 >



62) 다른 불교의 존상들과 마찬가지로 동자상 역시 상을 꾸미기 위해 천의를 어깨부터 발까지 두르고 허리에 포의 색과는 다른 덧치마를 두르거나, 덧치마를 고정하기 위한 띠의 장식무늬를 화려하게 넣거나 덧치마 고정 장식에 꽃모양을 두었다.

63) 법주사 원통보전에 1626년작 남순동자상이 있다. 쌍상투에 천의를 두르고 하의는 짧은 옷을 입었다. 두 손은 합장하고 꿇어앉아 관세음보살을 향하여 기원하는 상이다. 아주 어린 동자로 표현하고 있다.

64) 반비형태의 옷이란 오늘날 조끼와 유사한 형태로 소매가 없는 짧은 윗옷을 말한다.

그 외에 통도사 소장 조선전기 상으로 추정되는 동자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크기는 21cm로 매우 작다. 쌍상투에 포를 입었으나 길이가 무릎까지 오고 목이 긴 신을 신었다. 두 손은 가슴 앞으로 모아 작은 둥근 통을 들었는데 그 속에 무엇인가를 꽂은 것 같다. 거북모양의 대좌를 밟고 서있고, 크기로 보아 개인소장용으로 추정하고 있다.⁶⁵⁾<삽도 13-15>



1) 17세기

(1) 익산 승림사 1634년

승림사 소장 「승림사 재산대장崇林寺 財産臺帳」의 기록에 의하면 지장보살상 및 시왕의 조성 시기는 1634년으로, 보천사에 있었던 것을 승림사로 이안移安하였다 한다.⁶⁶⁾

65) 김춘실, 앞의 논문, p. 303 <그림 15> 크기가 15cm로 역시 개인소장용으로 추정된다. 이런 소장들로 미루어 조선후기 전국적으로 명부전이 건립되기 이전의 동자신앙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주탁, 「무령왕릉 출토 동자상에 대하여」 『백제연구』 1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8, pp. 109-118 선악동자상과는 성격이 다르나 무령왕릉 출토 유리제 동자상 역시 기복과 벽사의 의미로 지녔다고 추측되어 진다. 크기는 3cm가 채 안되는 매우 작은 상으로 왕비의 것으로 여겨지는데 매어 달기 위한 구멍이 있다.

66)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23, 2001, pp. 8-11, pp32-34, 「崇林寺 財産臺帳」 <地藏尊像 等 諸像移安記> 「本地藏尊像明崇禎七年甲戌造成于朝鮮國全羅道沃溝郡瑞德面寶泉寺 仍爲奉安矣以來日月屢遷至佛紀二天九百四十九年 三五年 寺的廢墟越三年乙丑 三十三年 本像外

현재 영원전(靈源殿)에 있는 4구의 동자는 전체 크기가 73-81cm로 재질은 흙이다.⁶⁷⁾ 4구 모두 쌍상투를 한 얼굴의 표정에서 어린아이의 순진함이 느껴진다. 특히 천진한 미소는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같이 따라 웃게 하는 상으로 다른 사찰들의 상에 비해 크기가 작지 않음에도 어린아이를 떠올리게 한다. 얼굴의 표현에 있어서도 눈, 코, 입 등이 작게 표현되어 실제 어린이의 얼굴을 보는 듯하다. 옷은 어깨에 천의를 걸치고 소매가 넓은 포를 입고 허리에는 덧치마를 걸쳤다. 덧치마 아래로 커다란 화형 장식과 장식 띠가 내려져 있는데 장식 띠는 포를 고정시키는 역할과 함께 장신구를 하고 있다. 동자상의 지물은 현재 모두 분실된 상태이나 손의 상태로 보아 3구는 연봉을 사선으로 위 아래로 잡고 있었던 것으로, 1구는 넓고 편편한 벼루 종류를 받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판 1-4>

(2) 구례 화엄사 1636년⁶⁸⁾

구례 화엄사의 명부전은 1636년 중건된 것으로 동자상의 조성시기를 17세기 중반으로 생각한다. 현재 동자상은 10구가 명부전에 남아있다.⁶⁹⁾ 상의 크기는 대체로 84-90cm로 큰 편이고 재질은 나무다.⁷⁰⁾ 머리형은 땃은 머리 2구, 단발머리 1구, 쌍상투가 7구인데 쌍상투에 표

十王及羅漢諸尊像竝爲移安于同道益山(石熊浦)而崇林寺.....」 1634년 조성된 상들로 조성 당시에는 전북 옥구군 신수면 보천사에 봉안하였는데 1925년 승림사로 이안하였다. 이 때 시왕, 나한과 여러 존상들 역시 함께 이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영원전(명부전) 건물도 1697년 조성된 성불사 칠성각을 1926년에 이전하여 세운 전각임을 밝히고 있다.

67) 익산 승림사에는 영원전 외에도 나한전에 동자상이 5구가 있다. 나한전의 동자상 역시 손에 무엇인가를 들었던 흔적은 남아있으나 현재는 알 수 없고, 다만 이 중 한구의 동자상의 머리에 쓴 모자가 요즘 아이들이 겨울철에 쓰는 병거지형 모자처럼 매우 독특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모자는 마곡사완주송광사의 사천왕 아래의 악귀들이 쓰고 있는 형태와 유사하였다.

68) 정병삼, 김봉렬, 소재구, 『화엄사』, 대원사, 2000, p. 89 1636년 대웅전 중건 때 함께 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완주 송광사의 경우처럼 명부전 건물의 조성과 함께 시왕이나 그 권속의 상들이 만들어졌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길게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상들이 조성되었으리라 생각하여 조성시기를 17세기 중반 쯤으로 생각한다.

69) 문화재 관리국, 『전국사찰등 소장 동자상 조사보고서』(1991년)에 의하면 12구가 남아있었다고 하나 확인한 바로는 10구 밖에 볼 수 없다.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명부전 왼쪽으로 영가단이 만들어져 있어 한 눈에 10구를 다 보기 어렵다. 현재 없어진 동자상은 연봉을 비스듬히 들고 있거나 커다란 연잎에 쓴 여러 가지 과일을 들고 있는 상(꽃다발형 공양물)으로 이를 보이고 활짝 웃는 상으로 천의와 윤건을 입은 화려한 상이다.

70) 문화재 관리국, pp. 156-162 화엄사 상의 머리:전신 의 비율은 1:5이다.

현된 총이 다른 사찰에 비해 꽃무늬를 넣어 화려하다. 조용히 생각에 잠긴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느낌을 주고 보일 듯 말 듯 살짝 머금은 미소가 예배자로 하여금 삶과 연결된 밝은 웃음을 짓게 한다. 동자상의 얼굴은 볼과 턱에 살이 올라 둥근 느낌이 강하며 보조개가 살짝 표현되어 있어 아이다운 귀여움이 묻어난다. 옷은 발까지 내려오는 포에 허리에는 덧치마를 입었는데, 덧치마 고정 띠에 있는 커다란 화형 장식과 물결처럼 층을 이룬 덧치마 선이 화려함을 더해준다. 대부분 신발을 신고 있으나 맨발인 상도 두 구 보인다. 단령을 입은 3구의 동자는 어깨에 운견과 천의를 두르고 있다.⁷¹⁾

지물을 살펴보면 왼쪽부터 벼루, 거북이, 연봉, 연잎, 작은 새, 오른쪽에는 사자, 거북이, 연잎에 싼 작은 수박, 꽃다발형 공양물, 작은 사자 등을 지니고 있다.⁷²⁾ 서수瑞獸 종류가 차지하는 수가 많다.

<도판 5-14 >

(3) 완주 송광사 1640년⁷³⁾

완주 송광사의 명부전은 다른 사찰의 명부전에 비해 매우 크다. 그리하여 중심의 지장삼존의 좌우로 각각 1,3,5,7,9와 2,4,6,8,10의 시왕이 일직선으로 앉아 있고, 시왕들 사이로 8구의 동자가 놓여있다. 명부전 양 끝으로는 판관 2구, 사자 1구, 인왕상이 각각 1구씩 서 있는데 시왕

71) 문화재관리국, 『전국사찰등 소장동자상조사보고서』 p. 191 원래 화엄사 명부전 동자는 12구로 2구가 분실된 듯하다. 분실된 동자는 천의를 어깨에서 발끝까지 걸치고, 어깨에는 운견, 허리에는 커다란 화형으로 장식하고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상이다. 다른 상들에 비해 화려한 상으로 1구는 선재동자처럼 상의는 운견에 반비형태의 옷을 입고 천의를 걸쳤는데 내려오는 곡선이 부드럽다. 손에는 줄기가 긴 연봉이다. 또 다른 1구는 포에 천의를 걸치고 덧치마를 입었다. 역시 이를 드러내고 웃는 상으로 공양물을 정성스레 얼굴 높이까지 들고 있다.

72) 지물 순서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1,3,5,7,9시왕 앞에 놓인 동자), 우(2,4,6,8,10 시왕 앞의 동자) 순서이며, 꽃다발형 공양물이란 동글게 만든 작은 꽃다발처럼 연잎 속에 여러 가지 공양물을 담은 형태를 말한다.

73) 문화재청, 『완주 송광사 대웅전 수리보고서』, 2002, pp. 73-74, pp. 91-92 1636년에 쓰여진 개창비문에 의하면 완주송광사의 창건기간이 1622년부터 1631년까지 10년간 진행되었는데 이 때 대웅전과 함께 명부전도 조성되었다. 그러나 명부전에 모셔진 시왕은 1640년 3월에 시작하여 7월에 완성되었음을 「시왕조성글공기十王造成訖功記」를 통해 알 수 있다. <庚辰年七月日西方山松廣寺 十王造成訖功記> 중략..... 「十王造成始於三月訖功七月日也兼設佛事也大哉全州一境外不出成之仍茲四事施主同共發願 이하 중략」 동자상 조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시왕의 권속인 동자상 역시 이 시기에 만들어졌으리라 생각한다.

을 놓은 곳과 동자를 놓은 곳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 동자는 무릎 근처까지만 볼 수 있다.

현재 완주 송광사의 명부전에는 8구의 동자가 있다. 1993년 지장보살의 복장에서 나온 「시왕조성글공기十王造成訖功記」에 의해 1640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인 상의 크기가 94-105cm로 비교적 크고, 전체 상의 크기에 비해 얼굴의 크기가 작으며 재질은 흙이다.⁷⁴⁾ 머리 형태를 살펴보면 쌍상투가 4구, 땅은 머리 3구 그리고 단발머리가 1구인데 얼굴 전면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다. 얼굴형은 방형이나 이마가 넓고 양 볼과 턱에 살이 올라 있어 전반적으로 둥근 느낌을 준다. 옷차림은 덧치마나 천의를 걸친 상도 있으나 그 형태가 단순하고, 덧치마를 고정하기 위한 커다란 화형 장식이나 긴 고정 띠를 내리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덧치마 단의 유려한 선이나 고정띠로 인한 화려함이 보이지 않아 단정한 느낌을 준다. 동자상 대부분은 포 형태의 단령이나 직령을 입었는데 길이가 무릎 또는 발목 부근까지 내려오고 그 아래로 일부 보이는 하의는 통이 넓은 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다. 단령을 입은 상 중 1구는 어깨에 운견이 표현되어 화려하고, 그 외 천의를 걸친 것 1구, 허리에 덧치마를 입은 것 상이 3구가 보인다. 손에 든 지물을 살펴보면 왼쪽부터 분실, 두루마리형 명부, 봉황, 공수(손 가리개 사용), 오른쪽에는 분실, 둥근 수박, 작은 사자, 책형 명부 등을 지니고 있다. 2구의 지물은 결실이나 손의 자세로 보아 편편한 것 또는 긴 것 종류로 벼루나 줄기가 긴 꽃가지를 들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수박을 든 손에는 손 가리개를 사용하여 공양물의 받치는 정성을 강조하고 대좌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사각대좌를 취하고 있다. <도판 17-24>

이 외에도 송광사에는 사찰의 입구인 금강문에 각기 사자, 코끼리를 탄 문수·보현 동자상이 있고, 나한전에도 나한전좌상의 무릎 부근에 조각된 동자상이 있는데 나한의 옷자락을 만지고 놀고 있는 동자, 나한의 대좌를 놀잇감 모양 놀고 있는 동자, 서수瑞獸와 놀고 있는 천진스런 동자상 6구를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동자상은 명부전 동자처럼 독립된 상이 아니라 나한과 한 조각으로 조성되었다.⁷⁵⁾

74) 머리높이: 전체높이의 비율은 1:5 정도이다.

75) 조선후기 나한상에 대한 신앙은 진리를 먼저 깨우친 자로 추앙을 받기보다는 기복적 신앙의 영향으로 영험한 존재로서 받아들여진다. 나한들이 호랑이나 사자와 놀고 있는 모습, 학이나

(4) 여수 홍국사 1648년⁷⁶⁾

현재 2구의 동자가 무사전無私殿에 남아있다.⁷⁷⁾ 쌍상투를 한 2구의 동자는 얼굴은 둥글고 이마가 넓다. 가늘고 긴 눈은 반쯤 감고 시선의 방향이 살짝 아래를 바라본다. 다소 경직된 느낌이 들지만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떠올리게 하는 상이다. 공수拱手를 한 손은 손 가리개로 가려져 가슴 높이까지 올리고, 포는 무릎 근처에서 앞자락을 ‘ㄷ’ 형으로 올려 하의에 입은 바지가 드러난다. 허리에는 덧치마를 입었으나 다른 사찰의 상들에 비해 매우 단순한 형태를 보이고, 덧치마 고정 띠에 작은 화형 장식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매우 간결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도판 15, 16 >

(5) 영광 불갑사 1654년

영광의 불갑사는 1998년 전반적인 조사에서 많은 자료들이 발견 되었고 그 중 하나인 「지장시왕조성기」에 의해 순치順治11년(1654년)에 명부전 상들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⁸⁾ 조성기를 살펴보면 동자상

영지를 들고 있는 모습- 일부 사찰에서는 윗부분을 잘라 씨앗이 보이는 수박을 들고 있기도 하다.- 등으로 표현된다. 또한 나한전에도 명부를 든 사자상이나 동자상이 표현된다. 완주 위봉사, 익산 승림사, 김제 귀신사, 완주 송광사 등. 이러한 경향은 산신 역시 사원의 외호신 중으로서의 의미보다는 기복적인 성향이 아주 강해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극락천도 기원이나 수복강령의 소원을 기원하는 것으로 신앙의 형태가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열수, 「조선후기 신신탱화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8, 장양경 「19세기 불교 산신도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정숙영, 「한국의 나한도」, 『한국의 불화』 15 마곡사본말사편(상), 성보문화재단연구원, 2000 명부전 시왕 발아래에 산신이나 나한처럼 사자를 밝고 있거나 사자가 시왕의 발아래에 놓고 있는 듯 옷자락을 물고 있는 상을 종종 볼 수 있다.(남해 용문사, 목포 달성사, 삼천포 운흥사 등)

76) 송은석, 「17세기 조선왕조의 조각승과 불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p. 400,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II·III 자료집 pp. 246-247 『여수 홍국사 목조도명존자입상 복장발원문』 「興國寺內碩德諸員與大施小施善男善女見聞隨喜者及化土等同參發願者并緣化良工某甲等?首歸命 幽冥地藏大聖尊道明和尚大辯長者及大冥王之殿下判官使者將軍童子等衆某甲等求哀懺悔至心乞請 中略 順治五年六月日誌 이하 생략」 각기 상에 대한 구체적인 시주자 명을 알 수는 없으나 동자상 조성에 대한 언급은 보인다. 이 외에도 지장보살상, 무독귀왕상, 조강대왕상, 진광대왕상 등에서도 발원문이 발견되었으나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77)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21, pp. 49-50 홍국사는 명부전의 성격을 지닌 건물 을 무사전無私殿이라 하는데 이는 개인 이유나 사정에 의해서가 아닌 철저한 인과응보에 의해 사후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름을 가졌다고 한다.

78) 강순애, 「영광 불갑사의 복장전적고腹藏典籍考」, 『사찰조경연구』, 1998, pp. 19-66

의 시주자가 6명으로 모두 비구들이다.⁷⁹⁾ 현재 남아있는 동자상 6구는 분실을 염려하여 팔상전에 보관중이며 동지 사시에배 때 볼 수 있다고 한다.

상의 크기는 83-99cm으로 동자상의 비교적 크고 나무로 만들었다. 머리 형은 쌍상투가 1구, 땀은 머리가 5구로 다른 사찰에 비해 쌍상투의 상이 적은 편이다. 얼굴은 둥글고 볼과 턱에 살이 올라있고 보조개를 머금고 있어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입가에 역시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어 밝은 느낌을 주고 턱 밑에 표시된 짧은 선이 살이 오른 얼굴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크기나 옷차림으로 보아 나이가 어린 동자라는 느낌보다는 좀 더 자란 청소년 같은 느낌을 주는 상이다. 그 중에는 벼루와 붓을 든 동자가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상도 2구가 있고, 귀에는 귀걸이 흔적도 보이고 있다. 6구 중 한 구는 여전히 귀걸이를 하고 있어 여자아이 같은 느낌을 준다. 옷은 5구는 직령의 포를 입고, 1구는 단령을 입었는데 동자의 어깨에는 화려한 운견이 표현되어 있다. 포는 대부분 직령으로 앞자락을 무릎 위까지 올려 포보다는 짧은 상의를 입은 느낌이 들고 허리에는 덧치마의 장식 띠가 화형과 연결되어 발까지 늘어뜨려져 있다. 포의 앞자락은 'ㄷ'형으로 올려 그 아래로 바지가 드러난다. 무릎 부근 바지를 고정하는 끈을 붉은 색으로 묶어 밝은 색 바지와 대비로 인해 장신구를 한 느낌을 준다. 연봉을 든 동자 중 1구는 좌우의 형태가 다르게 무릎 아래를 장식하였는데 독특하게도 좌우 모양이 다르다. 이러한 장식성은 불, 보살이나 사천왕등에서 볼 수 있다. 지물은 잎이 달려 있지 않은 줄기가 긴 연봉을를 가진 상이 3구, 두 손으로 책 형 명부를

79) 동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인 「지장시왕조성기」가 있음으로 인해 본격적인 17세기 상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은석, 앞의 논문, p. 444, 『한국의 사찰문화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II·III 자료집 2006, pp. 348-352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복장발원문」 「大明順治十一年甲午七月十六日靈光郡母岳山佛甲寺 중략 地藏大施主熙遠比丘 중략 童子施主豊介單身 童子施主義明比丘 童子施主通寶比丘 童子施主坦英比丘 童子施主尙嚴比丘 童子施主尙全比丘 이하 생략」이 외에도 무독귀왕, 도명존자, 1,3,4,5,6,7,8,10왕, 판관(좌), 사자(좌,우) 상에서도 발원문이 발견되어 모든 상에 비슷한 내용의 발원문을 넣었음을 알 수 있다. 지장삼존 및 시왕은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한 시주자가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외에 판관과 귀왕에 대한 시주자 그리고 그 외 각각의 물품에 대한 시주자를 언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찰문화재』에서는 불갑사의 동자상을 팔상전 다른 상들의 조성시기에 맞춰 1706년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불갑사 팔상전에 현재 보관중인 동자상은 원래 명부전의 동자상으로 도난에 대비하여 팔상전에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춘실, 「조선시대 불교동자상」, 『불교동자상』 도록, 2003, p. 290

펼쳐든 상이 1구, 붓을 든 상이 1구, 손 가리개로 감싼 손으로 머루를 들고 있는 상이 1구 있다. 상의 수에 비해 연봉가지를 든 상이 많고, 다른 사찰에서 보이는 서수瑞獸가 한 구도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분실하였다는 4구의 동자상 중 서수瑞獸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동자상들의 대좌는 다른 사찰에 비해 아주 독특한데 거북대좌가 1구, 연잎 위에 양련의 형태를 갖춘 연화대좌 1구, 연잎대좌 1구, 안상이 조각된 상 형태의 대좌 1구, 나머지 2구는 일반적인 모서리의 각만 살짝 깎아낸 둥근 대좌형태 1구와 사각대좌 1구이다. <도판 27-32>

(6)고흥 금탑사 1659년⁸⁰⁾

1659년에 조성된 고흥 금탑사 동자상은 현재 2구가 남아있다. 재료는 나무이고 크기가 72cm, 79cm이다. 2구 다 쌍상투를 하였는데 가는 눈과 유난히 큰 귀, 그리고 얼굴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삼각형의 코와 작은 입술이 어린 아이의 얼굴과 닮아 있다. 얼굴 표정은 다른 사찰과는 달리 미소를 띠거나 웃지 않는 경직성이 느껴지고 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전체적인 형상은 어린아이 같이 표현되었으나 고요한 그 표정에서 종교적 경전감을 느끼게 한다. 옷은 포를 걸쳤으나 앞자락을 허리까지 걷어 올려 길이가 긴 포를 걸쳤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어깨에는 운견과 천의를 걸치고 천의의 길이가 발아래까지 내려온다. 허리에 입은 덧치마의 고정장식에 작은 화형을 두었고, 덧치마는 앞쪽은 둥글게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손 가리개를 한 손은 공수하여 가슴 앞에서 모았다.

<도판 25, 26>

80) 송은석, 앞의 논문, pp. 453-464,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II·III 자료집 p. 274 「天燈山金塔寺地藏三尊十王新造成各各施主祝願記」 「順治十六年歲次己亥六月日全南道興陽縣 天燈山金塔寺地藏三尊十王新造成各各施主祝願記 地藏大主 劉善男 兩主 道明造成大施主 金氏 兩主 無毒鬼王造成大施主 戒環 比丘 十王造成大施主 御侮將軍訓練院判官 陳後平 兩主 이하 생략 」 기록된 시주자의 수가 매우 수가 많고(兩主를 두 명이라고 계산하면 300명이 넘는다), 시왕도 각각의 시왕의 이름을 적지 않고 시왕이라고만 하고 시주자도 7명만 기록되었다. 그 외 상에 대한 시주자로는 鬼王(1), 判官(1), 監齊(1), 直府使者(1), 監齊使者(1) 등에 대한 시주자가 적혀있고 동자상 시주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들 상 시주자 외에도 경, 물품, 후령통 등 아주 자세히 시주물품과 시주자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다.

(7)진도 쌍계사 1666년⁸¹⁾

10구의 동자상이 있다. 쌍상투가 5구, 연잎을 쓴 동자가 1구, 승형 1구, 땡은 머리 2구, 지장보살처럼 머리에 두건을 쓴 형이 1구 보인다.⁸²⁾ 옷차림을 살펴보면 포를 입고 허리에 덧치마를 두르거나 천의를 입고 있으나 다른 사찰에 비해 천의를 두른 상이 적어 장식성이 덜하다. 지물은 왼쪽부터 둥근 큰 과일, 연꽃, 사자, 벼루, 밀이 둥글고 위가 넓은 것 오른쪽으로는 사자, 벼루, 엽음, 책형 명부, 연꽃을 들고 있다. 이 중 4구는 새로 조성된 상이고, 지물 역시 예전의 사진과 비교해 보면 새로 조성한 것이 많아 예전 상의 분위기를 알기가 어렵다.⁸³⁾

<그림 33-42>

(8) 경북 달성 소재사 1675년⁸⁴⁾

7구이 동자상이 남아있다. 크기는 43cm - 58cm, 재질은 돌이다. 머리 형태는 쌍상투 3구, 연잎을 쓰고 있는 상 1구, 나머지 3구는 땡아서 뒤로 늘어뜨린 형이다. 얼굴은 방형이나 볼과 턱에 살이 올라 통통한 느낌을 주고, 표정은 얇은 미소를 띠고 정면을 바라본다. 전반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준다. 전체적으로 옷은 포를 걸치고 있으나 다른 사찰의 동

81) 송은석, 「조선후기 17세기 조각승 회장과 회장파의 조상」, 『泰東古傳研究』, 2006 p. 207
1993년 진도 쌍계사의 시왕전의 지장삼존상을 수리하고 개금할 때 도명존자상의 복장으로부터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의하면 지장상 등 명부전 상들의 제작시기가 강희오년 즉 1666년임을 알 수 있다. "康熙五年丙午?月初四日尖祭山雙?....."

82) 현재 녹색으로 칠해져 있어 두건을 쓴 듯한 동자는 원래는 단발머리를 했던 화엄사 상과 유사해 두건이 아닌 머리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현재 10구의 동자상이 있으나 4구는 (우3,좌1,좌3,좌5) 새로 조성된 것으로 실제로는 6구의 상이 1666년 작이다.

83) 현재 한국의 사찰문화재의 도판으로 확인한 상은 이전의 다른 도판과 다르게 새롭게 칠을 하여 예스러운 느낌이나 종교적인 상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특히 지물 역시 사자처럼 동자의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닌 것은 후보한 것이 많다. 특히 넓은 연잎에 만개한 연꽃 지물은 예전부터 있었던 지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또한 쌍계사의 상 중 4구는 신 조성新造成이라 되어 있는데, 제작당시 그 형상을 이전의 상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가 없다.

84) 문화재청-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자료집, 2007 p. 140 지장보살조상의 복장유물의 하나인 시왕조성기에 의해 조성시기를 1675년으로 추정한다. 지장삼존 및 시왕의 각각에 대한 시주자는 명시되어 있으나 관관, 사자, 동자상의 시주자는 나와 있지 않다. 「發願文 願我臨終滅罪 障往參西方大慈 尊金色光中蒙 授記虛空有盡 願不盡 未來 際度衆生 中略 康熙十四月日造成終」 같은 책,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1, p. 175 도판 52-58

자상에 비해 단령을 입은 수가 많다. 포의 형태에 상관없이 대부분 천의를 걸치고 덧치마를 입었으며 허리 고정 장식띠로 작은 화형을 아래로 띠를 내렸다. 천의는 다른 사찰과 유사하게 발 옆까지 내려 끝이 돌돌 말려있으나 포에 밀착되어 따로 걸친 천의라는 느낌이 적다. 포의 앞자락은 'ㄷ'형으로 무릎 위까지 올리고 그 아래로 무릎에 고정된 장식끈이 보인다. 동자상의 지물은 왼쪽부터 손 가리개를 한 공수拱手 위에 상자(흰 천), 긴 과일(수세미와 유사함), 둥근 과일(단 호박만큼 큼), 분실(손의 상태로 보아 벼루와 같은 편편하고 옆으로 긴 것을 들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오른쪽으로 봉황(동자의 시선이 천정을 향한 듯 위로 보고 있다.), 거북이, 사자(턱 부분에 사자 특유의 갈기가 표현되어 있지 않음, 무늬는 표범무늬), 가 있다. <그림 43-49>

(9) 고창 선운사 1676년⁸⁵⁾

선운사에는 현재 4구의 동자상이 남아있으나 한 구는 파손이 심한 상태이다. 크기는 71-80cm 로 큰 편으로 재질은 흙이다. 머리 형태는 쌍상투 1구, 뿔은 머리 2구이다. 얼굴은 정면이 아닌 약간 옆쪽으로 비껴 바라보고 있고 장난스럽게 살짝 웃고 있는 표정에 보조개가 있어 더욱 귀엽게 보인다. 한 구는 여전히 귀걸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상에도 귀걸이 흔적이 보인다. 옷은 포를 입었으나 앞자락을 무릎 부근에서 '人'형으로 올려 그 아래로 바지와 속옷 고정 끈이 보인다. 천의도 걸치지 않고 덧치마는 입지 않아 옷차림새가 매우 간결하다. 쌍상투에 단령을 입은 동자는 어깨에 운건을 하고, 손에는 둥근 받침의 긴 연잎을 들었는데 동녀 같은 느낌을 준다. 나머지 2구는 공수를 한 듯 손 가리개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머리에 관관처럼 관을 쓰고, 관복官服을 입은 동자가 2구가 있다. 이 중 1구는 다른 동자상과 그 모습에서 유사하지만 다른 1구는 동자라기보다는 웃고 있는 사자使者와 유사한 모습이다. 동자가 이렇게 관을 쓴 모습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현재 명부전에 있지 않다. <도판 50-55>

85)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북도·제주도, 2003, pp. 253-256 도판 1210-1236 참고, 1676년, 지장보살좌상, 무독귀왕, 도명존자, 시왕, 판관 4구, 사자2구, 동자 6구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전각에는 머리에 관관처럼 관을 쓴 2구의 동자상은 보이지 않고 1구는 많이 파손되었다. 이강근, 앞의 논문, pp. 66-67 표 7참고

(10) 공주 마곡사 1677년⁸⁶⁾

마곡사는 「목조도시대왕상木造都市大王像」 복장발원문에 의해 1677년 시왕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원문 내용에 동자상 시주자에 대한 언급을 없으나 동자상도 함께 조성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마곡사 명부전의 상들의 배치는 가장 일반적인 'ㄷ'자 형으로 지장삼존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놓여 있다.

현재 마곡사 명부전에는 11구의 동자상이 남아있고 재질은 모두 흙인데 크기는 45-63cm사이의 작은 상이다.⁸⁷⁾ 마곡사의 동자상은 전체적인 크기도 작지만 머리의 크기와 전체 상의 크기의 비율이 3:1 또는 3.5:1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머리가 더 커 보인다. 이는 발달단계로 볼 때 아직은 머리가 다른 크기에 비해 큰 어린 아이의 실제 모습을 연상시킨다. 머리형은 쌍상투가 6구, 땀은 머리가 4구, 깎은 머리에 연잎을 쓴 동자가 1구이다. 얼굴은 방형으로 턱 아래와 양 볼은 넓으나 이마가 매우 좁고 입 꼬리가 올라가 있어 절제된 미소가 감추어진 듯하다. 표정은 매우 절제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용한 느낌을 준다. 옷은 포를 기본적으로 입었으나 3구를 제외하고는 천의가 어깨부터 내려와 발 양 옆에서 둥글게 말려져 있고, 지장삼존의 좌우에 배치된 동자상은 허리 아래로 칼치전과 유사한 장식치레가 눈에 띈다.⁸⁸⁾ 또한 포의 길이가 무릎까지 올라온 두루마리와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동자가 2구는 다른 상에 비해 옷차림이 매우 간결해 보인다. 지장삼존의 좌우에 배치된 동자는 연잎으로 만든 꽃다발과 같은 형태 속에 여러 가지 과일을 담은 공양물을 머리 위까지 높이 들었는데 공양물의 크기가 동자의 크기에 비해 다소 크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꽃다발 형태에 여러 가지 공양물을 담은 것은 마곡사 입구의 사천왕 중 북방다문천왕의 왼손에도 표현되어 있다.

그 외 지물은 지장삼존의 왼쪽부터 공수(흰 천), 호랑이, 봉황, 붉은

86) 송은석, 「17세기 조선왕조의 조각승과 불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p. 473,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남도·대전광역시, 2004, p100 「康熙十六年四月日造像施主願之 第九王施主文武仁兩主 이하 생략」 도시대왕 시주자만 밝혀져 있고 다른 상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87)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남도·대전광역시 보고서는 재료가 돌로 되어 있고, 문화재관리청, 『전국사찰등소장동자상 조사보고서』와 『불교동자상』 청주박물관 도록에는 흙으로 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엔 재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88) 칼치전이란 불보살의 대의 위에나 발목 부위, 사천왕 등의 갑옷 끝에 다는 장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레이스 장식을 단 것 같다. 주로 사천왕들의 허리 장식에 크게 표현되어 있다.

과일, 거북, 오른쪽으로는 거북, 호랑이, 공수(흰 천), 벼루를 들었다. 다른 사찰에 비해 서수瑞獸가 차지하는 수가 많다. 특히 호랑이는 줄무늬가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고, 봉황 역시 매우 화려하게 깃털을 표현하였다. 다만, 상의 전체 크기가 작아서인지 서수瑞獸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욱 커 보이고 드물게 연꽃을 들고 있는 상이 없다. <도판 56-66>

(11) 청도 덕사 1678년⁸⁹⁾

지장보살 복장물 중 일부인 발원문에 의해 화악산 천주사天柱寺에서 1678(강희康熙 17년)에 지장삼존을 비롯하여 시왕들이 조성되었고 어떤 시기에 덕사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10구의 동자상이 남아 있지만 명부전 개축으로 인해 전체 공간이 좁아져 시왕의 좌우에 골고루 놓지 못하고 한쪽으로 몰려있다. 상의 크기는 58-72cm로 재질은 돌이다. 석재이긴 하나 물과 섞이면 석고와 같은 성질을 띠고 있기에 소조로 만든 상과 같은 느낌을 준다. 머리 형태는 쌍상투가 2구 나머지는 땅은 머리인데 이들 중 연잎을 쓰고 있는 동자가 2구 있다. 다른 사찰의 상들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덕사의 상들은 전체적으로 시선과 몸을 살짝 옆으로 돌려 자세에 변화를 주었다. 얼굴형은 방형으로 차분히 생각에 잠겨있다. 옷은 기본적으로 포를 입고 그 속에는 치마를 입었으나 포의 앞쪽, 뒤쪽, 양옆이 트여 있다. 특이한 것은 앞쪽 옷자락을 바람결에 휘날리는 것처럼 표현하여 생동감이 느껴지고, 허리에 주머니와 장도를 달아 장식성을 더해준다.⁹⁰⁾ 다른 사찰들처럼 천의나 덧치마를 입지 않았는데 이러한 포의 종류는 근처 용연사 동자상에도 보여진다.

덕사 동자 중 전체적으로 다른 상과 구분이 되는 3구의 동자상이 있

89)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I 2006 pp. 100-101,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2007 p. 280 지장보살 복장유물 발원문 「時維歲次康熙十七年戊午七月初五日慶尙道 淸道西嶺華岳天柱寺地藏大施主學文 이하 중략.」 발원문에는 지장보살 외에도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그리고 제1대왕부터 제10왕까지 시주자를 밝히고 있으나 판관, 사자, 동자상 시주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시왕의 권속들 역시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으리라 생각되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90) 울진 불영사(장도와 주머니 둘 다 차고 있음), 경주 기림사, 대구 용연사의 동자상도 일부 장도를 허리에 차고 있다. 이는 같은 지역이라 해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다른 지역의 동자상과는 구별되는 특징으로 포의 형태와 더불어 장도와 주머니를 착용한 것은 경북지역 동자상의 특징이라 여겨진다.

다. 머리형도 쌍상투, 옷도 상의는 반비형태의 옷을 입고, 하의는 짧은 바지 위에 덧치마를 걸쳤다. 이 중 사자(해태)위에 쭈그리고 앉은 동자상이 있고, 연봉을 쥐고 있는 동자의 대좌에는 대의大衣 동자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나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⁹¹⁾ 이들 3구의 동자상은 다른 동자들과 모습이 달라 제작시기가 다른 것이 아닐지 생각해본다. 지물은 분실, 둥근 수박, 긴 수박, 큼직한 복숭아, 복숭아, 연봉, 둥근 수박, 머리 위 연잎을 잡음, 없음, 벼루 등인데 대체로 공양물 위주로 들고 있고 사자, 거북이 등의 서수瑞獸가 보이지 않는다. <도판 67-7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부전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17세기에 조성된⁹²⁾ 동자상의 특징은 우선 크기나 지물의 종류, 옷차림, 재료에 있어서 어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심지어는 지역적인 특징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자유롭게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사찰의 동자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동자의 모습은 쌍상투나 땅은 머리에 포를 걸치고, 어깨에는 천의, 허리에는 덧치마를 입고, 손에는 지물을 들고 있는 상이다. 그러나 들고 있는 지물의 종류 중 벼루나 명부, 붓을 제외하고는 사찰별로 가지고 있는 종류가 일정하지 않고, 포나 덧치마의 형태 역시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는 별다른 소의경전 속 정해진 도상 없이 관념 속 동자의 모습을 사찰별로 자유롭게 조성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명부전 동자상 조성의 소의경전이라 할 수 있는 시왕경의 목판본에 표현된 동자

91) 동자가 사자를 타고 있는 상은 통도사성보박물관에도 있으나 문수동자상을 형상화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전남 도선기념관에 보관중인 고려시대의 문수동자상은 연화좌에 연꽃을 든 형으로 표현되고 있어 사찰의 입구에 있는 동자상도 그 모습이 일치하는데 통도사상이나 덕사 상은 연화좌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92) 송은석, 앞의 논문, pp. 369 - 516,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자료집 2006, 전라남도·I IIIII 자료집 2006 이 외에도 화순 쌍봉사(목조지장조살좌상 복장발원문, 1667년 추정, 동자 상을 시주자가 있음), 순천 선암사(1644년, 지장보살좌상의 복장발원문에 지장삼존 및 시왕, 판관, 사자를 조성한다는 명문이 있어 동자상 역시 조성되었다 생각됨.) 칠곡 송림사(목조지장보살좌우협시입상 복장발원문, 1665년, 동자상에 대한 시주자 기록이 있음, 현재 동자상이 남아있지 않다.) 고창 문수사(평등대왕상 복장발원문, 1653년), 1669년 청도 용천사(청도군각북면용천사사적에 현종십년에 완성되었음이 기록, 현재 동자상은 없음.) 1690년 전남 도림사(시왕의 좌상 발원문, 현재 동자상이 남아있지 않다.) 등의 불상관련 문헌 자료들이 있어 현재 동자상은 없지만 17세기에 당시 조성된 동자상은 더 많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현재 조선후기에 조성된 시왕상들이 있는 사찰 역시 동자상을 만들었으리라 생각된다.

상의 모습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볼 수 있다. 돈황에서 발견된 이른 시기의 선악동자의 표현에서부터 1618년 송광사본의 동자상의 모습을 살펴 보더라도 쌍상투에 긴 대수포를 입고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형태만 보일 뿐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 더구나 선악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자의 역할은 주존의 권위를 상징하는 협시동자나 주존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공양동자로서 이것은 도교의 시동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조선후기에 조성된 산신도나 나한도의 동자 모습을 살펴보면 명부전 동자 모습과 유사하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관념 속 동자의 모습에 더해진 또 하나의 동자의 모습은 선재동자이다. 오랫동안 불화에 자주 등장한 동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동자상 구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포 차림의 동자가 어깨에 걸친 천의나 운견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17세기에 조성된 동자상의 또 다른 특징은 상의 크기가 다양하게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17세기 상들은 대체로 전체적인 크기가 큰 편이어서 두상과 전체 높이의 비율이 1:5 정도가 되고 그 크기와 표정을 통해 청소년기의 남자아이를 연상하는 상이 많이 보인다. 또한 17세기 후반에 조성된 마곡사상처럼 크기에 있어 실제 어린아이처럼 머리와 전체 크기의 비율이 1:3.5로 나타나는 상도 있어 동자상의 크기 역시 그 모습만큼 다양하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점점 크기가 작아져 한 눈에 보아도 어린아이를 연상시키는 단신短身으로 주로 조성되는 경향으로 변해간다.

머리형은 쌍계와 땡은 머리가 대부분인데 쌍상투는 후대로 가더라도 그 수가 여전히 가장 많고, 땡은 머리는 19세기로 갈수록 더 많이 조성된다. 그 외 사찰별로 한 두 개씩 표현되는 연잎을 쓴 상과 소수이긴 하나 단발머리도 보인다. 얼굴형은 방형이나 이마가 넓고 볼과 턱에 살이 올라 둥근 느낌이 강하여 동자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옷은 직령과 단령의 포를 입었는데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나 무릎 근처에서 ‘ㄷ’형이나 ‘人’형으로 걷어 올려 아래의 속옷이나 고정끈을 보이게 하여 화려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어깨부터 내려와 팔목을 감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천의를 입은 상들이 많이 보이고, 허리에 입은 덧치마와 화려한 장식띠로 장식성을 더하였다. 그러나 청도 덕사의 경우 일반적인 포

와는 다른 형태의 포를 입고 있고, 전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도 보이고 있어 일부이긴 하나 다른 지역과는 구별이 된다. 지물은 서수瑞獸, 과일류, 벼루나 붓, 연봉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찰에 따라 그 지물의 종류가 다르나, 연봉과 서수瑞獸 그리고 벼루는 공통적으로 들고 있다. 또한 공양자로서 공양물을 공손히 받들기 위함과 함께 빈손을 내 보이지 않는 뜻으로 손 가리개로 두 손을 감싸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17세기 당시 가장 활발하게 명부전이 조성된 지역은 전라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2) 18세기, 19세기

18세기 이후 기복적 경향이 더 뚜렷해져 명부신앙이 더 유행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기존의 동자상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는 한 새로 조성하지 않았고 없어지거나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17세기만큼 동자상 관련 복장이 알려진 바가 적고 또한 박물관에 소장된 경우가 많아 동자상의 편년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다.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동자상은 1730년에 지장전이 건립된 고성 옥천사이다. 「연화산옥천사사적비」에 의하면 옥천사 명부전은 영조6년(1730년)에 건립되었고 현재 12구의 동자상이 남아있으나 역시 명부전에 두지 않고 따로 보관하고 있다.⁹³⁾ 크기는 40-50Ccm로 작은 편이고, 머리와 전체 크기의 비율이 3.5:1 정도로 들고 있는 지물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재질은 모두 흙이다. 동자상 모두 정면상을 취하고 있고 자세가 매우 경직되어 보인다. 반쯤 잠긴 눈에 얇은 미소를 띤 얼굴은 조선후기 불상의 얼굴을 연상시키고 있다. 머리는 두 구의 단발 머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땅은 머리를 등 뒤로 넘기로 넘기고 있고, 옷은 운건을 입은 한구의 상을 제외하고 직령의 포를 입었다. 포의 앞자락은 'ㅅ' 형태로 올려 그 아래로 속옷의 고정 띠가 내려져 있다. 그리고 다른 사찰에서 잘 볼 수 없는 소매가 넓은 포를 입고 있으며 장식성이

93) 김정희, 「고성옥천사 명부전 동상의 연구」 『정신문화연구』 통권 제32, 1987, p. 256 책은 옥천사에 전해 오는 기록을 모아 필사본으로 엮은 것으로, 앞부분은 절의 연혁에 대해 국한문 혼용체로 적었고, 뒷부분은 각 전각, 불상, 불화의 조성기 등을 실었다.

강한 덧치마를 입고 있지 않다. 경직된 자세로 느껴지게 하는 것은 손인데 대수포에 감추어진 동자상의 손은 모두 가운데로 포개어져 있어 지물을 잡고 있다고 보다는 그냥 손 위에 얹은 것 같이 보인다. 지물의 종류는 어깨 위로 높이 든 연잎 2구, 뽕족한 연봉, 봉황, 학, 호랑이, 두루마리형 명부(경전) 등인데 4구는 지물이 없고 1구를 제외하고는 손 가리개로 공수한 손을 덮고 있다. 공양물도 담지 않은 둥글고 큰 연잎을 긴 줄기 끝에 달고 있는 2구의 동자상 모습이 새롭다. 대좌는 네 귀퉁이를 살짝 모죽임한 팔각인데 대좌 윗부분에 1부터 10까지의 번호가 새겨져 있어 명부시왕들과 관련을 지어 조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⁹⁴⁾ < 도판 85-93 >

그 외 18세기 상⁹⁵⁾이라 여겨지는 동자상들 중에 박물관에 소장된 것들이 다수 있다. 「김룡사 사적기」에 의하면 명부전은 1714년에 창건되어 1781년에 중수가 있었고 1821년과 1897년에 불상개금과 단청불사가 있었다고 한다. 하여 현재 직지사정보박물관에 보관중인 김룡사 동자상 4구는 제작시기를 18세기~19세기로 생각할 수 있다. 얼굴은 옥천사의 동자상처럼 당시 불상을 연상시키는데 포의 길이가 무릎까지 올라오고 바지에 행전 표시가 있어 조선아동의 모습과 가까워지는 동자상의 모습이다. 역시 직지사정보박물관에 보관중인 수다사의 동자·동녀상 6구는 동자상이 놓였던 수다사에 1731년에 조성된 지장탱과 1771년에 제작된 시왕탱 4점, 사자탱 2점이 걸려있어 동자상 시기를 18세기 후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다사 동자의 특징은 선재동자형이 많이 보이고, 그 중 1구의 대좌에는 용이 그려진 독특한 모양의 대좌이다.⁹⁶⁾

<도판 78-84 >

19세기로 그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은 해인사와 흥천사이다.⁹⁷⁾ 해인사의 동자상은 1873년 담화대사가 명부전을 건립하면서 경남 창원 웅천의 성흥사에서 옮겨온 것이라 한다. 동자상은 모두 10구로 재질은 흙이다. 크기는 66-82cm 사이로 크기가 작은 상은 아닌데 전체적인

94) 문화재관리국, 『전국사찰등소장동자상조사보고서』, 1991 pp. 113-120

95) 직지성보박물관, 『직지성보박물관의 유물』, 2003, pp. 139-150,

96) 직지성보박물관, 『직지성보박물관의 유물』, 2003

97) 해인사는 현재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이라 알려진 불상의 안치를 위해 명부전이 없어지면서 존상들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느낌은 순한 어린아이를 연상시킨다. 표정은 차분히 생각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연잎을 쓴 동자 1구와 땡은 머리 1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쌍상투인데 그 표현이 매우 뚜렷하다. 옷은 직령과 단령의 포를 입고 앞자락을 올려 무릎 아래 부분이 드러난다. 허리에는 덧치마를 입고, 덧치마를 고정하기 위한 장식 끈이 내려져 있다. 지물은 두루마리형 책(명부, 경전)을 옆구리에 끼고 한 손은 허리끈을 잡거나, 줄기가 전혀 없는 연봉, 살짝 핀 연꽃가지, 복숭아가 여러 개 달린 가지, 서수瑞獸 그리고 가지이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가지의 등장이 새롭고 꽃가지로 얼굴을 살짝 가리고 있는 모습도 귀여울 뿐 아니라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표현이다. <도판 94-102>

홍천사는 1397년에 태조가 죽은 신덕왕후 강씨의 능을 수호하고 명복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으나, 1794년 현 위치로 이전하고 명부전은 1855년에 건립되었다가 1894년에 다시 세워지면서 시왕탱화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6점의 동자상이 명부전에 있는데 19세기 후반 작품으로 생각한다. 크기는 40-60cm 정도로 다양하며 재질은 흙이다. 머리가상의 크기에 비해 커 보이고 방형의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홍천사 동자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옷에 있다. 이전의 상들과는 달리 길옷이 포가 아닌 저고리의 형태가 되어 길이가 엉덩이 아래로 올라온다. 그리고 허리 고정 띠가 단순해지면서 천의와 덧치마가 생략이 된다. 바지는 무릎아래를 행전으로 고정해 둔 듯 좁게 조아져 있고, 98) 무릎부근까지 오는 신발을 신은 표현인지 버선을 신은 표현인지 무릎 아래에 선이 보인다. 머리는 1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쌍상투인데 머리형만 땡은 머리로 바꾼다면 당시 아이들이라 느껴질 만큼 옷이 조선아이들과 비슷하다. 지물은 수박, 복숭아로 보이는 과일, 자라, 학이 있고 손 가리개로 공수한 손을 덮은 것도 있다. <도판103-106>

그 외 19세기 후반들의 상으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상像 중에 완벽한 조선아이의 복장과 머리형을 하고 있는 상이 보인다. 저고리에는 아무런 무늬도 넣지 않았고 바지 역시 발목 부근을 조여주어 당시 아이들 옷과 일치되게 입었다. 물론 단령포를 입은 아이도 있으나 표현이 매우 간략해져 덧치마도 이중의 선으로만 표현하고 허리에도 장식 끈으로

98) 행전이란 바지 끝을 고정하기위해 발목부근에 천으로 조여 주는 것이다.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다. 상의 크기는 대개 50cm 내외로 재질은 나무이다. 들고 있는 지물은 호랑이, 봉황, 연꽃 등인데 호랑이가 매우 작아져 동자의 두 손에 안겨 있고, 동자의 표정 또한 매우 딱딱하여 어린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상은 구인사의 상들 중에서 보이는데 들고 있는 지물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물고기이다. 이런 종류의 동자상들은 19세기 말 상여의 장식인 꼭두의 동자상과 유사한 형태인데 이것은 동자상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꼭두가 오히려 민중예술의 저변확대로 인해 동자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⁹⁹⁾ <도판107-111>

18세기 이후 동자상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19세기로 갈수록 우선은 상의 크기는 일률적인 것은 아니나 머리와 전체 크기의 비율이 1:4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 재질은 대부분 나무이다. 전체적인 상의 느낌은 크기와 표정에 있어 어린 아이의 모습에 가까워지려는 경향이 보이나 얼굴은 17세기 상에 비해 둥근 느낌이 적고 더욱 방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옷은 기본적으로 포를 입고 있으나 천의 자락과 운견, 덧치마를 입은 경우가 드물고 조선아이의 옷인 전복과 유사한 형태가 동자상의 복식으로 등장한다. 즉, 옷은 포와 천의, 덧치마 등이전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더욱 간소해지고, 가까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실재 아이들의 옷과 유사한 형태의 옷차림이 등장한다. 이것은 아마도 시주층의 기층화가 가져온 미적 감각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지물은 이전 시대와 종류의 변화는 크게 없으나 손에 든 지물의 수가 2개로 늘어났는데 특히 병의 등장이 새롭다. 공양물로써 가지와 수세미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시주자의 현실적인 바람을 공양물이 가진 상징으로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 명부의 표현 또한 겹쳐진 명부가 바람에 날리는 듯 펼쳐지고 옷자락을 날리거나 손동작의 변화를 통해 움직임 표현하는 모습도 보인다. 지물을 받친 손 위에 손 가리개로 감싼 상과 함께 합장한 형태도 꾸준히 만들어진다. ¹⁰⁰⁾

99) 김아름, 「한국의 상여 장식 꼭두의 조형미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6, 『목인 박물관』 목인박물관, 도판31, 불교동자상의 영향으로 꼭두에 등장한 동자는 어린아이부터 수염이 그려진 동자까지 보여주는데 도포를 입고 쌍계를 틀고 있다. 지물은 해태, 호랑이, 고양이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중 해태를 들고 있는 동자는 19세기 후반에 보이는 불교 동자상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100) 감미숙, 「한국 불교사찰의 헌공다례」, 상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pp. 6-11. 공양이란 범어 pujana의 역어로서 원래 사사공양四事供養이라 하여 옷, 음식, 이부자리, 약

IV. 조선후기 명부전 동자상의 지물과 상징성¹⁰¹⁾

동자상의 지물은 크게 명부·붓·벼루, 경전, 연꽃이나 연잎, 서수瑞獸, 과일류, 합장·공수 등 여섯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⁰²⁾ 이 중 붓, 벼루, 명부 등 선악동자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지물은 명부전 동자상의 기본적인 지물로 거의 모든 사찰들의 동자들이 들고 있다. 그 외 지물들은 사찰에 따라 중점적으로 들고 있는 종류가 다른데, 예를 들면 불갑사의 경우는 연꽃을 든 동자상이 많고, 덕사의 경우는 공양물을 든 동자가 많은 반면 서수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시대에 따라 같은 지물이라도 그 표현이 조금씩 달라진다. 현재 사찰마다 남아있는 동자의 수가 일정하지 않고 사찰별로 집중 조성된 지물의 종류가 각기 다르므로 시기적으로 어떤 지물의 수가 더 많으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7세기가 지나면 새롭게 다시 동자상을 조성하기보다는 이미 조성된 동자상의 분실이나 파손에 의한 보수로 만든 상이 많았을 것이고 진도 쌍계사의 경우처럼 후보된 것의 지물이 시대의 산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8세기, 19세기에 처음으로 조성된 상들의 시기가 많이 밝혀지고 많은 동자 수가 확보가 된다면 시기 별 비교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시대가 내려갈수록 지물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해지고 그 표현에 있어 특히 공양물의 경우 좀 더 크게 표현하고 있다.

을 공양하였지만 여러 경전 속에서의 의미하는 바가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大日經義釋 卷十一에는 供養香華, 合掌, 禮敬, 慈悲運心の 四種供養을, 法華經 法師品에서는 花, 香, 瓔珞, 末香, 塗香, 燒香, 繪蓋, 幢幡, 衣服, 伎樂의 십종공양을 들고 있어 공양의 종류가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하여 동자상의 합장상 역시 공양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1) ‘상징이나 원형은 인류의 심리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칼 융의 말처럼 동자상의 지물은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본능에 잠재워있던 생각들을 잘 보여주는 상징물로서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02) 일반적으로 불교상에 있어 지물이라 함은 그 상의 성격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의미하지만 여기서의 지물은 동자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 손에 든 공양물, 함께 있는 서수瑞獸,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실한 마음을 담았을 합장·공수까지 포함하였다.

1. 명부와 붓, 그리고 벼루

첫 번째는 명부전 동자의 성격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명부와 붓, 그리고 벼루다. 명부전 동자는 선악동자로서 사람의 탄생과 함께 태어나 그 사람의 일생과 같이 하는 존재로 착한 일이거나 악한 일이거나 작은 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다. 명부시왕의 소의경전이라 할 수 있는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豫修十王生七經』 및 『지장보살발심인연시왕생칠경』에서도 명부신앙과 관련된 선악동자의 역할과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⁰³⁾ 이렇게 인간의 선악을 빠짐없이 기록한 동자는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 제4오관대왕의 찬문에 나와 있듯이 관관이 죄인의 죄과의 경중을 달 때 업칭 곁에서 명부를 들고 서 있다.¹⁰⁴⁾ 그 외에도 명부전 동자의 역할을 알 수 있는 시왕도를 살펴보면 '오관왕의 업칭은 공중에 걸려있고, 좌우 두 동자의 업을 기록한 장부는 완벽하네. 죄의 경중이 어찌 인정이 바라는 대로 되랴, 저울 추 오르내림은 제가 저지른 옛 인연인 것을.'라는 오관대왕의 찬문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자의 지물 중 가장 중요한 명부는 두루마리형과 책형으로 표현되는데 후대로 갈수록 두루마리보다는 책형이 많이 보이고 있다.¹⁰⁵⁾ 17세기 상들의 명부표현을 살펴보면 둥글게 말린 명부를 좌우 비스듬히 쥐고 있거나 책형 명부를 두 손으로 펼쳐 가슴 앞까지 올린 자세로 불보살에게 올리는 공양물처럼 매우 소중히 다루고 있는 마음가짐이 보인다. 이에 비해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면 책형 명부가 자주 등장하는데 한쪽 겨드랑이에 명부를 끼고 다른 한 손에는 붓을 들고 있는 형상으로 표

103) 김두재 옮김, 앞의 책, p. 21, pp. 113-114 『불설예수시왕생칠경』과 『불설지장보살발심인연경』을 모두 시왕경이라 불리운다. 이 책에 번역된 목판본은 1618년 승주 송광사松廣寺에서 간행된 판본의 경문을 번역하였다. 김두재 옮김, 앞의 책,

104) 김두재 옮김, 앞의 책, p. 49

105) 일부 동자상 도록에서는 동자가 들고 있는 책을 명부가 아닌 경전으로 해석한다. 천도재 중 시왕단권공재에는 시왕이 재의 중심이 되고, 의식 중 전생의 갚아야 할 빚으로 일정한 양의 경전을 읽어야 했기에 당시 예수재를 지내던 사람들이 경전을 보시하거나 돈으로 시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자가 들고 있는 책을 공양물의 일종인 경전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왕상처럼 책의 표면에 경의 이름을 적은 경우(법화경이나 금강경 등)를 아직 보지 못하였고, 시왕탱의 장면에서 동자의 손에 들린 명부는 두루마리나 책 형 둘 다 보므로 동자의 책은 명부라고 해석함이 더 옳지 않나 생각한다.

현되어 얼핏 보면 책을 끼고 있는 학동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다. 현재 박물관에 있는 상으로 접이식 명부가 바람에 날리고 동녀가 그것을 잡으려는 듯 구부린 자세로 표현된 상이 있어 동세를 느끼게 해 준다. 선악동자의 상징물로 명부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벼루다. 명부가 직접적인 선악동자의 상징물이라면 붓과 벼루는 명부를 기록하는 도구로 간접적인 명부의 상징이 된다. 또한 명부와 붓과 벼루는 동자뿐 아니라 시왕도 들고 있는 지물이기도 하고 판관, 사자 역시 그 역할로 인해 명부를 들고 있다.¹⁰⁶⁾

이렇듯 명부전의 선악동자의 지물로서 가장 중요한 붓, 벼루, 명부는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모든 사찰의 명부전에서 빠뜨리지 않고 표현되는 지물로서 아무리 작은 선악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적는다는 구절처럼 항상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적선積善하며 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당시 불교의 방향이 기복이 강조되던 시기라 재를 올리는 자의 공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적어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많은 복락을 달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¹⁰⁷⁾ <삽도16-18 >



삽도16 송광사, 1640년



삽도17 은해사 백홍암,
18세기



삽도18.온양민속박물관,
18세기

106) 명부전 상 중 명부를 들고 있는 상은 동자뿐 아니라 시왕, 판관, 귀왕, 그리고 사자도 들고 있고 나한전의 사자도 역시 명부를 들고 있다. 같은 명부를 들고 있어도 그 역할의 상징성으로 볼 때 죽은 자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당도하여 죽은 이의 선악 행위를 기록한다는 것으로 보아 사자가 동자와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경판¹⁰⁸⁾

두 번째 지물로 경판을 들 수 있다. 동자가 경판을 들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현재 무량사에 있는 동자 중 한 구가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들고 있다.¹⁰⁹⁾ 경전은 동자뿐 아니라 시왕이 머리에 쓰고 있거나 시왕탱의 시왕 앞에 놓여진 탁자 위에 여러 가지 기물과 함께 경전이 놓이기도 한다.¹¹⁰⁾ 무량사 동자가 들고 있는 『부모은중경』은 말 그대로 깊고 중한 부모님의 은혜를 강조한 경으로 조선후기 언해본으로 판각되어 널리 알려진 경이다.¹¹¹⁾ 인도에서 불교가 유입되어 유교국가인 중국에서 포교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출가가 불효不孝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답을 찾아야 했던 불교는 부처님 역시 아버지 정

107) 김두재 옮김, 앞의 책, p. 154 『불설지장보살발심인연시왕경』 「삼가 바라노니, 열 가지 명호를 지닌 지존께서는 고통에서 구제하여 기쁨을 주는 자비한 마음 드리우시어 열 대왕 명부의 관리들이 은혜를 베풀어 선한 기록만 남겨 악을 사면하게 해주고 지옥을 극락정도로 변하게 해주시며 펄펄 끓는 불지옥을 청량하게 하여주옵소서.」 비록 경의 내용은 아니나 경의 본말기로서 당시 사람들의 바람을 적어둔 글인데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밑줄은 임의로 그은 것임.

108) 실제로 지물이 경판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부모은중경』은 조선후기 명부전 조성 배경이 되는 사상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효사상과 연결되어 있고, 조선후기 불교 간행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부모은중경』이므로 남아 있는 수에 관계없이 그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109)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p. 69 다른 사찰과 같은 이유로 현재 동자상은 명부전 말고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기에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110) 시왕 중 머리 위에 경전을 얹고 있는 상은 대부분 제5 염라대왕이다. 경전은 법화경 또는 금강경으로 되어있는 사찰이 많다. 물론 개체가 여러번 이루어지기에 경의 이름이 처음 조성 당시의 경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성행하였던 영산재는 천도재의 목적뿐 아니라 치병까지 아주 넓게 기복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여 당시 사람들 사이에 영산회상도의 바탕이 된 법화경을 중시하여 조성하려는 생각들이 많아져 법화경 조성 및 아미타불 조성을 권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김두재 옮김, 앞의 책 p. 146 「도시대왕이 죽은 사람을 애달프게 생각하여 말한다. '여러 경전들 중에 법화경을 짓게 되면 용녀가 용궁에서 나와 티 없이 맑은 도를 이루리라. 또 여러 부처님 중에 아미타부처님을 조성하게 되면 광명이 두루 비추고 열한 지옥의 고통을 면하리라.' 이하 중략」

111) 道端良秀/목정배 옮김, 『불교의 효 유교의 효』, 불교시대사, 1994, pp.83-96 수나라나 당나라 초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위경偽經이라 불린다. 이 경전은 중국·한국·일본에서 널리 민간에게 보급된 경전으로 부모의 은혜가 중함을 설하고 있다. 이 경전의 소재가 된 것은 『불설효자경』, 『부모은난보경』, 『우란분경』이다. 이 중에 특히 『효자경』이 중심이 되어 『부모은중경』이 작성되고, 여기에 유교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남희숙, 앞의 논문, pp. 130-139 『부모은중경』은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多羅尼經』 즉, 자식의 수명에 관한 『장수경』이 함께 합본되어 표현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장수경 역시 유교 윤리에 적합한 기본 윤리를 쉽게 백성들에게 유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반왕의 죽음 소식을 듣고 관을 매려 갔다가 돌아간 어머니를 위해 경을 설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통해 불가佛家 역시 효를 매우 중요시 여겼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곧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라고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오계를 지키는 것이 곧 오상을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¹¹²⁾ 이러한 생각들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경전들의 판각사업에 일반적으로 비구나 신도들이 참여한데 비하여 『부모은중경』의 판각에는 국가가 앞장서서 조성한 기록들이 나타난다. 즉 이 경의 유교적 성향으로 인하여 조선초기부터 양반 사대부들이 적극적으로 간행에 참여하였던 경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¹¹³⁾ 효경이라 불리었던 『부모은중경』은 효를 행하라는 단순한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의 내용을 변상도로 표현하여 글을 몰랐던 농민들 사이에 쉽게 효사상이 퍼져나갔다. 변상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전의 서론이라 할 부분에 부처가 길가에 버려진 해골에 예를 올리는 여래정례도如來頂禮圖를 시작으로 하여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기울이는 10가지 은혜와 아무리 어렵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도저히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변상도 8가지 있다. 그리고 이 경전을 읽고 쓰고 죄를 참회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그림과 그렇게 하지 않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경이 담고 있는 내용의 소재

112) 道端良秀/목정배 옮김, 앞의 책, pp. 59-96, p118 『불승도리천위모설법경佛昇切利天爲母設法經』, 『육방예경六方禮經』, 『불설부모은난보경佛說父母恩難報經』,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불설효자경佛說孝子經』, 『대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삼자경佛說睒子經』,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우란분경盂蘭盆經』 등 여러 경전에서 부처님 역시 효를 실천함을 강조하고, 효의 실천이 극락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생각들이 송대(427-479) 이후엔 불교의 계율인 오계(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를 금하는 것)를 지키는 것이 유교의 오상(인, 의, 예, 지, 신)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주장으로 발전하였다.

113) 남희숙, 앞의 논문, 2004, pp. 120-129 부모은중경은 조선시대 전시기를 통하여 꾸준히 간행되었는데 특히 1486년(성종17년) 경상도 안동 용정사龍井寺본의 간기에는 다른 불서와는 다르게 승려의 이름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양반 및 지방관아의 아전이 간행에 핵심적인 財政과 書寫刻手의 일을 담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즉 경의 성격이 매우 유교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같은 효경으로 불리어 조선전기에 많이 간행되었던 『목련경』이 조선후기에는 『부모은중경』이 대부분 간행되었던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즉, 신앙심으로 어머니의 '업보'를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목련경보다 부처가 직접 부모의 은혜가 중하므로 효를 다해야 한다는 유교적 색채가 더 강한 경이었기에 의도적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보급된 경전이 된 이유로 여겨지고 있다.

가 당시 농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더욱더 농민들과 친숙했던 『부모은중경』은 당시 민간불교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것은 당시 유행한 불교가사 '회심곡'에서 알 수 있다. 회심곡의 내용은 부모은공 및 불의不義 경계와 적덕積德을 권유하는 것인데 그 이전의 다른 불교가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당시 『부모은중경』은 '부모은중경화청'으로 불리거나 고사염불告祀念佛에서 뒷 염불로 활용이 되고, 회심곡의 단락 중 '탄생'으로 포함된다. 당시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부모은중경』은 단순히 효사상의 보급뿐 아니라 불교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¹¹⁴⁾ 현재 청도 덕사에는 천주사天柱寺에서 이안되어 청도 덕사에 모셔진 지장보살의 복장물에도 다른 경전과 함께 『부모은중경』이 포함되어 있어 조선후기 명부신앙과 효 사상과의 깊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¹¹⁵⁾ 또한 위경僞經류 불서佛書 중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간행된 것 역시 『부모은중경』으로 유교가 국가의 기본이었던 조선시대에 불교가 포교를 위해 택했던 가장 유교와 가까운 모습을 지닌 폭넓게 사랑받은 경이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강화도 전등사의 동자상 중 3구, 경기도 화성 용주사의 1구의 동자상에서도 등 쪽에서 복장의 흔적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만약 복장물로 경전을 넣었다면 『부모은중경』과 성격이 비슷한 것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명부전 동자상의 지물로 만들어진 경판에는 민중들을 국가가 의도한 유교윤리로 가르치려는 국가 주도 불교의 한 단면과 역불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의 불교의 유교윤리 지향 방침, 그리고 적선을 통한 내세와 현세의 복락 보장을 기원하는 대중화의 여러 면들을 알려주는 상징이라 생각한다.¹¹⁶⁾ <삽도 19, 20 >

114) 김동욱, 「회심곡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4, pp. 17-46 회심곡은 불교가사, 혹은 화청으로 불리거나 문전염불노래로 파악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를 잉태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해산에 임하여 고통을 받으신 은혜, 자식을 낳았다고 근심을 잊어버리는 은혜, 입에 쓰면 삼키고 단것이면 뱉어서 먹이신 은혜, 마른 자리에 아기를 눕히고 진 자리에 누우신 은혜,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깨닫지 못한 것을 씻어주신 은혜, 자식이 멀리가면 생각하고 염려하시는 은혜, 자식을 위해 나쁜 일을 하시는 은혜,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은혜 등의 부모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 내용이 서민들 생활을 소재로 하여 일반 서민들에게 효 사상의 파급효과가 더욱 컸다고 한다.

115) 경상북도,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2006, pp. 98-100

116) 조선후기에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사상으로 적선을 통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설했던 도교를 들 수 있다. 즉, 무병장수를 원하는 이들은 반드시 선을 행하라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 『부모은중경』의 유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당시 국가의 의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꽃

세 번 째 지물로는 연꽃이 있다. 연꽃은 가장 불교적인 꽃으로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속성으로 인해 해탈을 이루기 위해 전개하는 정진으로 비유되거나 깨달음에 비유하여 각화覺花라고도 불린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불교 미술의 주요 소재로 쓰였고 그 중요성에 걸맞게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명부전 동자상 지물로 거의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표현이 되고 있다.¹¹⁷⁾ 연꽃은 불법공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공양물로 아주 큰 공덕을 쌓는 일임을 알려주는 인연이야기가 있다.¹¹⁸⁾ 대표적인 이야기로 정광불에게 올렸던 꽃 공양으로 인해 미래에

117) 이경숙, 「19세기 불화에 나타난 연꽃의 상징과 표현」, 경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pp. 24-25 시대에 따라 연화화생, 내영자를 맞는 불국토의 연꽃, 진리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만개한 연꽃형으로 담겨진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다. 임영애, 「꽃줄과 동자를 통해 본 간다라와 서역의 교류관계」, 『강좌미술사』 25, 2005 pp.149-168 죽음과 관련된 공간에서 동자의 꽃 공양은 간다라 미술에서부터 시작된 매우 오래된 불교미술의 모티프였다.

부처가 될 것임을 받는 수기 장면에서도 연꽃은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역시 정광불 부처에게 바칠 꽃을 빌려준 인연으로 석가모니 현생에 부부가 된 태자비의 이야기나 정성껏 마련한 꽃 공양으로 인해 목숨이 다한 뒤 천녀의 몸으로 태어나거나 법을 깨달은 여러 인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꽃 공양은 아주 기본적인 공양인 동시에 아주 큰 공덕을 쌓는 공양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¹¹⁹⁾ 다만 17세기에 조성된 동자의 연꽃은 대부분 그 형태가 활짝 핀 만개한 꽃봉오리보다는 피지 않은 연봉오리의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아마도 동자가 갖는 성장기의 어린 아이라는 의미가 연봉의 형태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예로부터 동자와 연꽃은 깨끗함의 상징으로서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연꽃이 한 뿌리만 번져도 마디마디에서 잎과 꽃이 자란다는 싱성한 생명성으로 인해 끊어지지 않는 자손, 즉 다자와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것 역시 불교의 윤회관으로 본다면 반복되는 인생에 있어 죽음 다음에 이어지는 삶은 어린아이로 상징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동자의 연꽃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물로 극락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그 공양으로 인해 가고 싶은 연화화생일 수도 있다.

동자상과 관련된 연꽃의 표현은 연잎을 여러 가지 공양물을 받치는 그릇(법식구)으로서 사용하거나 모자처럼 머리에 쓰고 있는데 17세기 후반에 조성된 청도 덕사와 공주 마곡사 동자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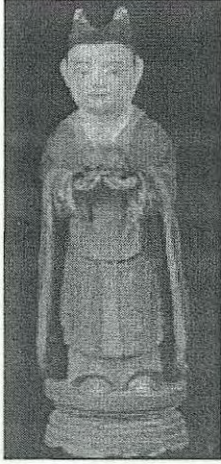
연꽃의 표현의 변화를 살펴보면 17세기에는 피어나지 않은 연봉의 형태로 잎이 적은 가지에 한 송이 정도 표현했던 연꽃은 해인사 동자상에선 여러 송이가 달려있고 잎이 풍성해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등형태의 연꽃 표현도 18세기에 등장함을 볼 수 있다.

그 외 조선후기에 들어 유교, 도교에서 역시 연꽃과 관련된 상징성이 깊어지면서 불화에서의 표현이긴 하나 길상적 의미를 담은 모란과 함께 연밥형 연꽃표현이 등장하고 있어 명부전 동자상 연꽃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¹²⁰⁾

118) 김미숙, 「한국 불교사찰의 헌공다례」, 성신여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pp. 8-11

119)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현우경』, 동국역경원, 2001, pp. 460-467

120) 이경숙, 앞의 논문, pp. 23-35 불교에서의 연꽃은 연화화생과 깨달음의 꽃으로, 유교에서는 선비의 가치와 정신세계를 표현한 꽃으로, 도교에서는 신선의 세계를 표현하는 꽃으로,

		
삽도21. 동국대, 18세기	삽도22. 용연사, 19세기	삽도23. 가나아트센터, 18세기

4. 공양물¹²¹⁾

네 번째는 과일 종류의 공양물이다. 재齋에 있어 공양물이란 죽은 이가 생처生處를 얻기까지 머무는 중유기간 중 하근기인 죽은 이 중유의 존재에게 꼭 필요한 향을 섭취할 수 있게 하여 생을 이어나게 한다. 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상적 상징으로 폭넓게 사회전반에서 사용되었다 한다.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법주사의 명부전의 경우엔 연봉형태의 연꽃과 연등형태의 연꽃이 모두 보이는데 연등 형태의 연꽃은 18세기 이후에 등장한다. 이러한 연등 형태의 연꽃은 감로탕의 인로왕보살과 연관된 벽련대를 연상시킨다. 진도 쌍계사의 동자상이 들고 있는 연반침에 활짝 핀 형태의 연꽃은 매우 드문데 아마도 후보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121) 김두재 옮김, 앞의 책, p. 122 「또 나(염라법왕)와 나길니라는 탈환귀의 무리와 기사귀라고 하는 전시기에게 제달라월(정월)·시라별라(5월)·미가시라(9월)·에 주야 7일 동안 황혼이 될 때까지 우리들에게 이른 바 향꽃·금·쌀·은·전·은·변·銀·幡·은·폐·銀·幣· 신선 세계의 과일 두 가지 (석류와 대추)와 좋은 차 등을 공양하고, 똑바른 자세로 북쪽을 향하여 모든 공양을 잘 갖추고서 일심으로 공경을 다하여 예를 올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대신주108번을 염송하면, 나 염마왕과 나의 모든 권속들이 애처롭게 여겨 잘 받아들일 것이니, 그렇게 공양하기를 마치고 나서 돈과 번기와 폐백 따위를 바치고 제사를 올려라. 나略 틀림없이 오래도록 수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이하 중략」 공양물에 대한 공덕이 현실적인 복락과 연결되어 잘 나와 있다. 밑줄은 임의로 그은 것임.

러한 생각들은 재물에 대한 불교식 제례 성립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¹²²⁾ 중유의 존재는 재의 의식 속에서 불보살의 가피를 입은 공양물을 다시 섭취함으로써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는 감로의 진리를 얻을 수 있다 한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 위에 재에 올리는 공양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 차려지는데 동자상들이 들고 있는 공양물의 종류는 복숭아¹²³⁾, 천과¹²⁴⁾, 수박, 석류, 가지, 이름을 알 수 없는 긴 과일, 녹각 또는 신수神樹라고 추정되는 것이 보인다. 공양물의 주는 과일들로 주로 여름철 과일들이면서 기복적인 상징을 담고 있다. 17세기에 표현된 과일들은 연잎을 받침처럼 사용해 수박, 복숭아, 천과 등을 담아서 두 손으로 받치거나 또는 연잎을 작은 꽃다발처럼 만들고 그 속에 여러 가지 과일들을 담고 손 가리개로 감싼 손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과일 묶음을 동자의 어깨 높이 위로 들어 그 높이가 동자의 머리 부근까지 올려 들고 있는 것도 있는데 공양물 하나하나의 크기가 작아 자세히 보아야 무엇인지 알 수 있다.¹²⁵⁾ 그러나 18세기로 접어들면 과일을 담은 그릇이 연잎처럼 넓어지고 커지면서 그 속에 담긴 공양물의 크기 역시 커져 이전에 비해 공양물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이 때 강조된 공양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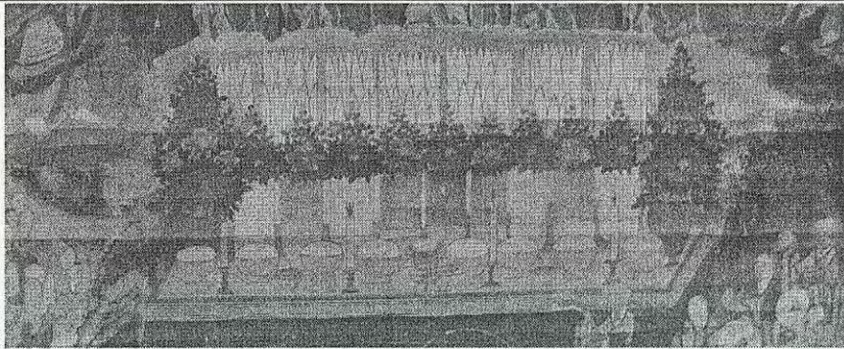
122) 구미래, 「불교의례 재물의 중층적 의미」,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2006 pp. 207-213

123) 노자키 세이킨·변영섭·안영길 옮김, 『중국 길상도안』, 1992. p. 115, 서왕모가 가꾸는 복숭아 반도는 3000년 만에 열매를 맺으므로 장수를 축원하게 되었다 한다. 정재서, 앞의 책, 2006 pp. 99-100 복숭아는 도교와 관련이 깊은 과일이다. 조선 후기 명부신앙에 큰 영향을 준 것 중 하나가 도교인데 도교의 윤리는 장수와 연관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즉, 도교에서 지켜야 할 덕과 적선, 청규, 계율을 지키는 정도와 사람의 수명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교서인 『포박자』에는 “다른 사람을 위기에서 구출해주고 질병을 치유해주는 한편, 충효·화순·인신 등의 덕을 쌓지 않으면 아무리 방수와 복이를 실천해도 장수는 누릴 수 없다. 악행을 크게 저지르면 사명司命의 신이 300일의 생명을, 작게 저지르면 3일의 생명을 빼앗는다. 따라서 악행을 거듭 쌓으면 천성적으로 타고난 수명이 점차 줄어들어 일찍 목숨을 잃기 때문에 항상 덕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천선이 되고 싶은 사람은 1,200가지의 선을 쌓아야 하는데 설사 1,199가지의 선을 쌓았다고 해도 그 다음에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때까지의 선행은 모두 사라져버린다.” 라고 하여 적선과 유교적 윤리인 충효가 이른 시기부터 도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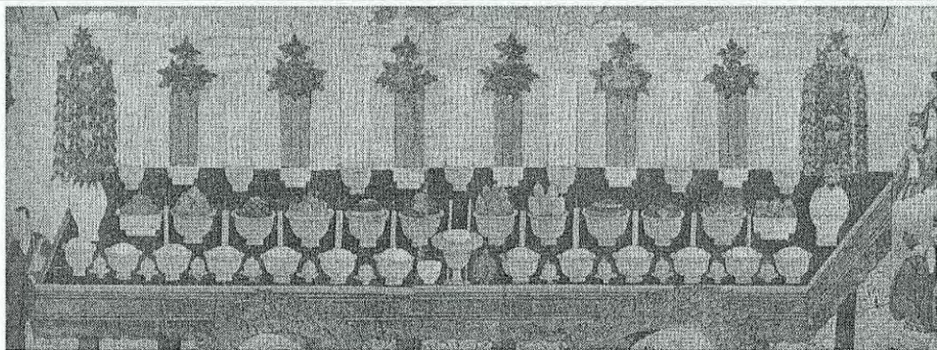
124)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는 과일들로서 참외처럼 생겼으나 더 길고 크며 주로 노란색으로 표현되나 표면에 아무 특징이 표현되지 않은 형, 배처럼 둥근 과일로 크기는 크고 표면에 노란 색이나 붉은 점을 찍어 표현함, 그 외에도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과일들은 아닌 천과로 표현하였다.

125) 각 사찰에서 전각의 예불 때 올리는 반승을 들고 가는 것을 보면 승려의 어깨 위로 들어 올려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선은 승려의 입김으로 인해 반승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다는 뜻도 있지만 소중한 것을 들고 간다는 의미가 더 크다. 동자상이 들고 있는 공양물을 어깨까지 들고 있는 상 역시 이러한 것의 표현이라 생각이 된다.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수세미로 어떤 동자상은 자신의 크기의 2/3 정도의 수세미를 들고 있어 동자보다 수세미가 강조되어 보이기도 한다. 수세미와 더불어 18세기에 이후 더욱 강조되어 등장하는 지물 중에 가지와 석류가 있다. 가지 역시 수세미와 마찬가지로 동자가 손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잡고 있는 표현이 18세기, 19세기로 갈수록 많이 보이고, 어떤 경우엔 2개 이상의 가지를 잡고 있는 상도 등장하여 단순한 공양물의 성격보다 그 공양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더 부각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18세기 감로탱의 중단에 표현된 공양물에서도 잘 알 수 있다.¹²⁶⁾ <삽도 24, 25 >



삽도24 . 일본西敎寺 소장, 감로탱(1590년), 시식단 부분



삽도 25. 쌍계사 소장 감로탱(1728년), 시식단 부분

126) 통도사성보박물관, 『감로』, 2005 일본 약전사 소장 감로탱(1589년), 금산 보석사 감로탱(1649년), 하동 쌍계사 감로탱(1728년) 도판 참고. 이들 감로탱의 제단 부분을 살펴보면 감로탱이 조성되던 16세기 말에는 육법공양의 주가 되는 성반, 향, 다식류, 지조紙造공양구가 주가 되다가 17세기 중반에는 과일을 담은 완 줄이 한줄 생겨 놓이게 되는데 살펴보면 천도복숭아, 석류, 가지, 수세미 등의 과일 채소가 올려 지게 된다. 이러한 과일을 놓은 줄

가지와 수세미는 남자아이의 상징이고 수박과 석류는 다산의 상징이다.¹²⁷⁾ 그렇다면 죽은 자의 극락천도를 바라는 명부전에서 이런 종류의 과일에 대한 의미를 공양물이 아닌 다산과 남자아이의 탄생으로 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재의 공덕을 극락천도의 대상인 죽은 자보다는 살아서 재를 지내는 자에게 더 큰 공덕을 강조했다던 재의 성격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¹²⁸⁾ 즉, 재의 공덕을 죽은 자나 산자 모두 받게 되지만 특히 살아서 지내는 재의 공덕은, 즉 재를 시행하는 자의 공덕은 재가 가져다주는 공덕의 6/7을 가져갈 만큼 크다고 하여 각종 재를 유도하거나 신앙심을 고취하였다는 생각이 된다. 명부전에서 지냈던 재齋는 규모면에서나 의식절차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 성격은 모두들 같았다고 한다. 그 중 시왕각배재十王各排齋는 저승에 있다는 10명의 대왕에게 부자 되게 해 달라고 행운을 비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하고, 그 외 상주권 공재,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역시 회향을 통해 재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축원을 베푸는 의식이 있다고 점에서 명부전이라는 죽은 자를 위한 공간

은 18세기 후반에 들면 성반보다 한 줄 더 앞으로 그려짐을 볼 수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양물은 가장 귀한 것으로 귀하거나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름철과일이 주가 되는 공양물의 의미를 우란분재가 행해지던 계절이 여름인 것으로 인해 단순히 여름에 많이 나는 과일로 한정지어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중과 우란분재에 관한 글들을 살펴보면 백중이란 우리 고유의 농사짓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불교의 제례의식과 결합되어 조상천도를 위한 제를 지내긴 하지만 그 성격은 사적인 제보다는 마을 전체의 동제의 성격을 지니고, 축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하여 조선후기 명부신앙의 성행으로 인한 각종 천도재나 예수재와는 성격이 다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관점들을 생각해 보면 가지나 수세미가 단순한 공양물의 의미만 지니는 것으로서 표현되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고, 조선후기 다른 전각에서 표현된 이들의 상징성이 유독 명부전에서만 그 의미가 완전히 배제된 채 명부전에 올려 졌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 127) 노자키 세이킨 ·변영섭·안영길 옮김, 앞의 책, p. 105, <북사>권56의 <위수전>에 안덕왕이 이조수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을 때 왕비의 어머니가 자식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을 석류를 보내줌으로 표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석류는 유개백자라 하여 자식 중 특히 아들을 많이 둘 것을 바라는 표현이다.
- 128) 김두재 옮김, 앞의 책, pp21-22, 살아생전 예수재를 지낸 사람은 나중에 죽어도 49일 동안 중음신의 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쾌락한 곳에 태어나며 친족 남녀들이 모여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하였다. 우리말 지장경, 우리출판사, 제7품 이익존방품 pp. 239-251, 『...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살아 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으면 명이 다한 후에 비록 대소 권속들이 일에 모든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1/7은 망인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가나니 이런 연고로 미래, 현재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하여 생전예수재의 중요성 및 재를 지내주는 자의 공덕을 매우 강조하여 많은 재의 시행을 유도하였다. 밑줄은 임의로 그음.

에서 다산이나 장수 등 현실적인 복락을 기원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다.¹²⁹⁾ 그렇다면 재齎를 지내는 자가 소원한 공덕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세계에 들어섰을 때 시왕 앞에서 받는 지옥의 고통 없이 즉시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겠지만 살아있는 현재 가지고 싶은 것은 바로 무병장수와 함께 다산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산 중 특히 남자아이는 당시 농업의 중요한 노동력이자 과거 응시를 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자를 의미하기에 그 어느 현실적인 바람보다 강한 것이라 생각한다.

공양물이란 명부전의 지장보살과 시왕 및 여러 권속에게 올리는 정성 어린 재물로, 천도의 대상이 되는 영혼들의 죄를 소멸하고 극락왕생을 위해 불보살과 영혼을 이어주는 매개물이 된다. 동시에 공양물을 준비한 시주자의 바람을 명부전의 주존인 지장보살과 시왕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상징물이기도 한 것이다. 조선후기 당시 사찰의 경제상황과도 직접적 관련이 있었던 각종 재齎 의식은 불교 자체의 깊은 종교적인 신앙이 담기는 것 이상으로 시주자의 바람을 강하게 담은, 기복적인 면이 가득 담긴 재물이었다고 생각한다. < 삽도 26-28 >



129) 윤금희, 「불교와 무속에 나타난 영혼 천도 의식과 춤에 관한 연구」, 2006, 5-7 명부전에서 진행된 재의 성격은 죽은 이의 극락천도와 살아있는 이의 현재와 후세에 극락 및 복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종류로는 상주권공재常住勸公齋, 시왕각배제十王各排齋, 생전에 수제生前豫修齋 등이 있다.

5. 서수瑞獸¹³⁰⁾

다섯 번째는 서수瑞獸들이다. 서수의 종류에는 사자, 호랑이, 학, 봉황, 자라, 거북이 등이 있다. 이들 역시 과일류의 공양물들처럼 후대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거나 전체적인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이런 이유로 동자가 서수를 안거나 앞발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수에게 안겨있다는 생각이 든다. 명부전은 아니나 구인사성보박물관에 있는 동자의 지물은 물고기로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명부전 동자들이 서수와 함께 표현된 것은 아마도 극락왕생 기원과 관련이 깊은 재의 성격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두 차례의 전쟁과 극심한 자연환경의 변화로 많은 재해를 겪었던 17세기의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재齋를 활발히 거행하거나 사회적 불안요소들을 미리 막거나 없애려는 마음으로 재를 거행하게 된다. 그리고 사찰은 예전에 비해 더 화려해져 사찰이 곧 극락세계임을 크게 부각시키고, 명부전 역시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한 동자상을 조성하여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극락이나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서수들을 등장시켜 민중의 염원인 극락왕생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자상이 지닌 지물로서의 서수瑞獸는 사자와 거북이가 가장 많고 그 외 호랑이, 봉황, 학이 등장한다. 이 중 거북이는 극락은 지상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죽은 이를 용궁(극락)으로 인도해 주는 인도자로서 역할도 한다.¹³¹⁾ 이러한 거북(자라)의 역할은 바다를

130) 지물이란 의미는 손에 들고 있는 무엇으로 그 상의 성격을 나타내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서수瑞獸를 들고 있는 물건의 한 종류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사자나 호랑이는 동자가 들고 있다기보다 동자와 놀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했고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지물을 해석해 서수를 지물의 한 종류로 분류하였다.

131) 거북이는 천개의 윗부분 장식에 달려있기도 하고, 전각의 기단부분(청도 대적사에는 여러 마리의 거북이 표현되어있어 굴이 바닷가 근처에만 조성된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디가 극락이 없는 곳이 없다는 상징성이 더 큰 것 같다.) 또는 초석(미황사의 초석의 게, 자라) 이나 기단 면석에도(여수 홍국사 기단면석의 게 문양)바다 관련 동물이 새겨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교교리와 관련하여 대웅전이 반야용선이므로 바다와 관련된 문양을 조각했다는 해석과 미황사와 홍국사 역시 바닷가에 세워진 사찰이므로 바다와 관련된 수륙제등 각종 불사와 관련된 해석 등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 p. 33 그 외 거북은 바다

끼고 있어 해난 사고가 잦았던 서남해안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17세기 당시 명부전 조성이 활발했음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자연스러운 동자의 지물인 것이다.¹³²⁾

사자는 각 사찰의 수미단에 표현되어 신성한 부처님의 자리임을 표시하거나 나한이나 시왕의 발아래에 표현되어 이들이 신통력을 지녔거나 천계의 인물임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명부전 사자는 우선 재가 거행되는 명부전 내부가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다른 세계임을 나타내는 역할과 함께 영혼을 극락까지 인도하기 위한 벽사 기능을 하는 수호자의 역할도 생각할 수 있다.¹³³⁾ 사자나 호랑이의 표현을 보면 그 어색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입구 쪽, 명부전에 들어오는 사람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이를 드러내고 있고 표범의 무늬를 사용하고 있

동물로 어디에나 극락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불영사에 기단에 문헌 경우처럼 화재가 잦은 사찰에서 부적처럼 사용되어지기도 했다. 허균,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서울, 돌베개, 2000, pp. 56-66 인도의 불전설화佛典說話인 불타의 본생담本生譚을 근원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기복이로 전용되어 ‘귀토지설龜兎之說’에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 기복은 바다 속에 위치한 또 하나의 불국토인 용궁으로의 인도자를 상징한다.

132) 남희숙, 앞의 논문, pp. 105-106 『설암잡저雪巖雜著』에 수록된 소疏들 중 「천익망소薦溺亡疏」의 내용을 보면 익사한 사람들을 위해 천도재를 올리는 것이 내용이다. 즉, 익사한 사람들의 원혼을 천도하여 용궁이 천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의 기록이긴 하나 천도재를 거행할 만큼 해난사고가 큰 재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우진, 앞의 논문, pp. 84-87, p. 93 사찰경영에 있어 경제적 도움이 컸던 명부전의 경우 17세기 이후 전국적으로 조성이 되는데 바다와 인접한 지역인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우 명부전의 위치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당시 해운활동의 성행으로 인해 잦은 해난 사고로 인해 죽은 자를 많아 명부전을 통해 극락천도를 바라는 재가 많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육지 뿐 아니라 바다에도 극락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강과 바다가 인접한 지역은 관음전과 영산전이 많은데 이것 역시 관음신앙과 해난사고로부터의 안전이 연관된 기복적인 성격의 결과라고 하겠다.

133) 엄소연, 「조선후기 동물상징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05, pp. 89-97, 조선후기 사회에서 호랑이는 매와 결합하여 부적으로 사용될 만큼 벽사의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고, 조선 중기 이후 민간 풍습으로 확산된 문배세화에 닭, 호랑이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호랑이그림은 부적처럼 사람들의 염원인 일신평안·소원성취에 즉각 반응하는 벽사적 영물靈物의 의미가 강화된다. 특히 실제 호랑이의 발톱, 털, 이빨 등을 몸에 지니는 제위초복除危招福하는 습속, 호피를 그린 병풍, 신부의 혼례용 가마에 덮는 호담虎毯,은 호랑이의 벽사성에 대한 강한 믿음의 예라고 할 것 이다. 동자상의 지물 중 사자와 호랑이는 서로 상징의 의미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 즉, 동물세계의 제왕인 사자는 용맹과 위엄으로 상서로운 것을 상징하는데 함께 등장하는 호랑이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니고 나아가 호랑이의 표범무늬를 사자 역시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후대로 나아갈수록 호랑이의 무늬가 줄무늬로 점점 사실적으로 변한다. 이는 성장한 민중의식 및 개념적인 표현에서 사실성으로 변화한 문화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즉 공양물 뿐 아니라 서수瑞獸들 역시 이들의 상징성과 표현방식은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다.¹³⁴⁾ 이것은 영가천도를 지내는 공간에 대한 벽사의 기능과 함께 극락으로 가는 영혼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호위해주는 성격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외 영혼이 편히 극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존재가 바로 봉황과 학이 아닐까 생각한다.¹³⁵⁾ 예로부터 새 종류는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져 솟대의 끝이나 부장품 토기의 모형으로도 만들어졌고, 민가에서 망자를 마지막으로 태우고 갔던 상여 장식의 맨 꼭대기에도 새 종류가 장치되어 있다. 즉, 금조, 봉황, 닭, 기러기 등으로 표현된 이들은 저승세계로 죽은 이를 운반해주거나 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존재로 해석되고 있다. 상여의 봉황을 탄 동자와 명부전에서 봉황을 들고 있는 동자상은 이러한 면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¹³⁶⁾ 19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기림사 동자의 지물인 단학丹鶴인 경우 그 색으로 인해 신선이 타고 다니는 승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장수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조선후기 기복성이 강했던 불교계의 성향이 자연스레 표현된 것으로, 동자상 지물 역시 단청이 거둬질수록 그 시대에 더 선호했던 지물로 개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찰의 기복성은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찰계의 일종인 만

134) 노자키 세이킨·변영섭·안영길 옮김, 앞의 책, p. 177 표범에 대한 열녀전 이야기를 보면 표범무늬(문채文彩)가 신성함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역경易經』 「혁괘」에는 ‘대인이 면목을 일신하면 그 문채가 빛난다’ 라고 하여 표범 무늬가 정치개혁을 진행한다는 의미한다. 또한 도교의 오랜 전설에 따르면 대본산인 강서의 용호산에 머물던 장천사가 천하의 악마들을 정복하러 갈 때 바로 호랑이를 타고 출발하였다고 해서 호랑이를 악귀를 몰아내는 호신부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호랑이를 표현할 때 표범의 무늬를 사용함으로써 표범무늬를 더 상스러운 여긴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흥배의 호랑이를 들 수 있다. 같은 책, pp. 569-570 호랑이뿐 아니라 사자의 무늬의 표범 무늬 역시 같은 상징성을 지닌 것이라 생각한다.

135) 엄소연, 앞의 논문, pp 113-116 승학신선도乘鶴神仙圖는 6세기 후반 집안오회분에 처음 그려지기 시작하여 승천초월·장수 등을 상징하고 신선사상과 결부되어 더욱 신비화 되었다. 즉 학의 백색의 몸체와 목·깃털 부분의 흑색 대비는 탈속의 경지를 나타내고, 특히 단정학丹頂鶴은 신선과 결부된 장생의 상징을 강조하고 있다. 동자가 든 지물에서 학은 두가지 모습을 다 취하고 있으므로 극락세계로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재를 지내는 이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동자가 학을 탄 모습은 천개의 윗부분의 장식물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는 민중들 사이에 번져있던 학을 탄 인물에 대한 상징성이 불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136) 봉황은 서수瑞獸瑞獸 중의 하나로 예부터 신성시 되어 새 중의 왕으로 여겨졌다. 봉황이 언제부터 불교적인 성격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안락태평을 상징하기에 극락정도에 노니는 극락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천개부분의 장식에 동자가 봉황을 타고 가는 상이 있다. 그 외에도 공포의 끝부분에 장식된 봉황을 쉽게 볼 수 있다.

일계萬日契 역시 후대에 가면 기복적인 성향으로 흘러 수복강녕을 기원하게 된다.¹³⁷⁾

동자가 지닌 서수瑞獸는 죽은 영혼이 편안히 극락으로 갈 수 있도록 호위해주는 벽사의 기능과 함께 극락으로의 인도자의 역할 그리고 죽은 곳이 어디라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극락왕생의 믿음을 나타내는 상징물,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는 재를 지내는 이에 대한 장수 축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 삽도 29-31 >



6. 합장¹³⁸⁾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내 보인다는 것이고 또한 그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137)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2006, pp.79-116

138) 합장한 동자상의 지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없다. 하지만 여러 경전에서 말하는 공양의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합장 역시 진실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기악이나 무용처럼 귀중한 공양이라 생각하여 지물의 범주에 넣었다. 상의 수 역시 다른 상에 비해 적지 않다. 또한 공수한 손 위에 손 가리개를 한 상들 역시 공손한 마음을 표현한 상으로 여겨 합장과 같은 범주에 넣었다. 다만, 공수한 상태의 동자상들 중 지물을 올려둔 상들도 다수 보이므로 공수한 손이라도 맞잡은 손이 어떠한가에 따라 공수인지 지물을 올려두기 위한 손의 표현인지 구분해야 한다.

명부전 동자상 중 많은 수가 손 가리개를 한 공수 자세를 취하고 있다. 17세기에 조성된 흥국사와 금암사 동자상이 대표적인 상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늘고 긴 눈은 약간 먼 곳을 응시하고 입술은 꼭 다물고 있다. 맞잡은 두 손은 가슴 높이까지 올려 손 가리개로 가렸다. 전체적으로 단정한 옷차림과 경직성마저 느껴지게 하는 동자의 자세는 종교적 경건함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그 앞에 서면 쌍상투를 한 아이라는 겉모습에서 주는 친근함보다 저절로 느껴지는 숙연함에 자연스레 같이 합장을 하게 될 것 같다. 18세기를 넘어서면 맨 손을 가슴 앞에서 모은 합장형 동자상이 등장한다. 가슴 앞에서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은 가슴 정중앙에 두거나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에서 어린 아이 같은 약간의 장난스러움도 느끼게 한다. 시선 또한 깊은 곳을 응시하는 시선이 아니라 예배자의 눈높이 맞춘 정면을 바라보는 시선이기에 훨씬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영혼의 천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공양물은 무엇이였을까? 바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정성을 다해 재를 올리는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장한 동자상은 그 대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명부전의 주존主尊이신 지장보살의 대원을 향해 올리는, 기댈 곳이 생긴 중생들의 깊은 안도함을 담은 감사함과 함께 무량한 자비심에 대해 숙연해지는 마음을 동자의 합장 속에 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삽도 32-34 >



V. 맺음말

명부전은 지장삼존, 시왕과 그 권속들 그리고 시왕도로 둘러싸인 벽들로 인해 보는 이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매우 정확한 전각이다. 즉, 시왕도를 통해 죽음에서의 고통을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주고, 시왕의 붓과 명부, 권속들의 명부를 보면서 자신의 행동 하나 하나가 다 기록이 되어 죽어서의 행불행과 곧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생의 삶에서 바른 삶을 살고 공덕을 많이 쌓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명부전이 제시한 뚜렷한 명제들은 누구에게나 두려우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런데 명부전은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시왕상十王像을 들여다보자. 각각의 시왕상에는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에 의한 출생갑자出生甲子가 다 적혀있는데 이것은 출생의 인연에 따라 명부에 갚을 빚을 밝혀두고 각자의 갑자에 해당하는 시왕에게 빚을 미리 갚을 것을 권하고 있다. 이들이 갚아야 할 빚에는 빌린 돈과 경經을 읽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전紙錢을 태우거나 돈을 보시하기도 하고 불경을 간행하거나 읽는 것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었다. 이렇게 미리 지내는 예수재豫修齋는 사후의 극락왕생의 보장과 함께 현재 삶의 복락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고 예수재의 공덕은 사후 지내는 다른 재들과 비교해 볼 때 특히 그 공덕을 높게 평가 받았다. 아마도 대부분 사찰의 동자상들이 들고 있는 붓, 벼루, 명부는 이러한 공덕을 다른 어떤 선행 중에서도 중요하게 적어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부전 동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선악동자의 상징물 외에도 여러 다른 지물을 들고 있어 선악동자로서의 역할 외에 동자의 다른 역할을 생각하게 한다.

우선 선악동자 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동자의 상징성은 명부전이라는 전각의 성격과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인해 중유中有의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중음中陰 혹은 영혼이라고도 하는 중유는 명부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윤회의 과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존재로 사후死後 다시 생처生處를 얻을 때까지의 존재 상태를 말한다. 즉, 모든 생명체를 윤회하게 하는 중계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사후에서 다시 탄생할 때까지 현재

와 연계된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존재이다. 이들 중유는 태어날 생처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어지는데¹³⁹⁾ 쌍계사 감로탱(1728년 작)에서 중유는 순수한 동자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삽도 35>



삽도 35. 하동쌍계사,
감로탱(1728년) 부분(중유)

쌍계사 감로탱(1728년 작)에 표현된 동자 모습의 중유는 발가벗은 채로 두 손은 합장하고 있다. 감로탱에서 이들 중유의 위치는 공양물이 차려진 단의 가장 앞쪽으로, 중유의 왼쪽으로는 정성을 다해 재를 올리는 상주들의 모습이, 오른쪽으로는 감로甘露를 기다리는 아귀들이 합장한 채 무릎을 구부린 채 앉아있다. 재가 진행되면 불보살의 가피加被를 입은 공양물은 이들 중유의 존재에게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줄 감로를 줄 것이다. 이처럼 감로탱에 그려진 이들 동자 모습의 중유들은 명부전 내에서는 정성스레 공양물을 들고 있는 동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생각한다. 즉, 재의 대상이 되는 망자는 재를 올리는 그 당시에는 중유의 존재가 되었고, 마음을 다해 재를 올리는 현재의 생자生子 역시 시간이 지나면 중유의 존재가 되는 것이 불교의 생사관인 윤회이다. 감로탱의 중유로서의 동자가 공양물이 차려진 재단의 가장 가까이에 있어 감로를 기다리듯 명부전 동자는 공양물을 직접 들고 불보살과 시왕의 가장 가까이에 공양물을 올리고 있다. 이 때 동자를 협시 공양 동자라고 하여도 그 안에 내포된 뜻은 같다고 본다. 자력自力으로 진리를 깨우쳐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면 타력他力으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정성껏 공양물을 올리고 있으며, 그 공덕으로 생처를 얻어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면 그 모습 또한 시작을 의미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139) 김승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감로』 통도사성보박물관, 2005, pp. 17-20, p. 54 중유의 모습은 태어날 생처生處에 따라 세 가지로 표현된다. 우선 천신으로 태어날 중유는 앉아서 일어나듯이 머리를 세우고 하늘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둘째로 인간, 아귀, 축생으로 태어날 존재는 사람의 모습과 같고, 지옥중생이 될 중유는 머리를 아래로 하고 발을 위하 한 채 지옥을 향해 떨어진다고 한다.

재생력이 강한 연잎을 쓴 동자의 모습에서 더 강하게 보이는데 연잎을 모자처럼 쓴 동자상은 17세기 후반부터 꾸준히 만들어진다. 극락의 연못에서 피어난 연꽃에 표현된 왕생자往生子 역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어린 아이의 모습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을 포함하고 있는 강한 상징성이다. 재의 공덕은 죽은 자를 극락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도 하지만 살아생전 재를 올리는 자에게 그 공덕을 더 많이 내려준다고 했다. 그렇게 본다면 극진히 공양물을 올리는 동자는 중유의 존재로서 극락을 바라는 존재이기도 하고, 나아가 시간이 흐르면 그 자신 역시 중유의 존재가 될 재를 올리는 당사자, 자신이기도 하다.

동자상은 그 모습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일정한 틀을 정할 수는 없지만 후대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많이 취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로부터 어린 아이는 때 묻지 않은 본바탕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여 종교적인 이상형으로 여겨졌다. 『불설佛說장아함경』 「세기경世紀經」 '도리천품'에는 중생이 공부가 향상되고 선업善業이 많아지면 다음 생에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¹⁴⁰⁾ 이것은 어린 아이의 모습은 종교적 지향점인 선업의 결과로 인해 갖는 것으로 절대자의 모습에 좀 더 가까워지는 순수함의 상징임을 말하고 있다. 명부전 동자의 어린 아이의 모습은 중유의 존재로서, 나아가 재를 올리는 당사자의 모습으로서 좀 더 불보살과 시왕 등의 신적인 존재에게 가까이 다가가 공양하고 싶은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해 본다.

명부전 동자상을 떠올리면 웃고 있는 어린 아이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초기 상들에는 활짝 이를 드러내고 웃는 상들도 있지만 대체로 살짝 웃는 미소로 바라본다. 어린 아이의 미소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따로 웃게 만들고, 웃음으로 인해 항상 무겁게 짓누르던 삶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거나 잊게 해 준다. 또한 동자의 미소는 삶이란 힘

140) T.1(vol 1) 『불설佛說장아함경』, K 20 「세기경世紀經」 '도리천품', p. 134 ⑥ 「만일 어떤 중생이 몸으로 선을 행하고, 입으로 선을 말하며, 뜻은 선을 생각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도리천에 날 것이다. 이 後識은 멸하고 저 初識이 생길 것이다. 識을 인하여 名色이 있고 명색을 인하여 六入이 있다. 저 하늘에서 처음 난 것은 염부제의 2, 3세의 아이와 같아서 자연이 화현하여 하늘의 무릎 위에 있다. 저 하늘은 곧 말한다. '이것은 내 아들, 이것은 내 딸이다'라고, 이하 중략」

들어하는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선업을 쌓으면 사후에 태어날 천계에서 뿐 아니라 현재 삶에서도 원하는 삶, '수부귀壽富貴 다남자多男子'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현실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자상 조성이 활발하던 17세기는 두 차례의 전란과 함께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을 민중들에게 동자상의 조성은 죽은 이들을 위한 영혼 천도 기원뿐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고 살아내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큰 위로를 주었을 것이다.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된 명부전 동자는 선악동자로서 삶에서 지향해야 할 바른 기준을 제시해주고, 극락에 태어날 중유의 존재로서 사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힘든 현실 속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함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명부전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철저히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사고 방식은 동자들이 들고 있는 지물의 상징들로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고, 죽음을 단절이라 생각하지 않는 생각들로 인해 현세에서의 업보가 사후의 삶이 고통과 행복이 결정되기에 적선積善을 하며 살아가려했던 당시 사람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죽음의 공간에서도 그 두려움으로 인해 현재의 삶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7
강우방, 『한국 불교의 사리장엄』, 열화당, 1993
구보 노리타다, 『도교의 신과 신선이야기』, 뿌리와 이파리, 2004
김두재 옮김, 『지장경』, 성문출판사, 2006
김정희, 『조선태조 지장시왕도 연구』, 김정희, 일지사, 1996. 2004
김현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교보문고, 1996
노자키 세이킨 · 변영섭 · 안영길 옮김, 『중국 길상도안』, 1992.
안진호 편, 한정섭 주, 『석문의범』, 법륜사, 2001
이재호 역, 『삼국유사』, 명지대학교출판부, 1975 · 2000
정병모, 『회화 I』, 예경
정재서, 『한국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편,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한국역사연구회 편, 『한국사 강의』, 한울아카데미, 1995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2006
허균, 『사찰, 그 빛나는 장식』, 돌베개, 2000

2. 도록

- 국립공주박물관, 『우리 문화에 피어난 연꽃』, 2004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의 석탑』, 2004
국립중앙박물관, 『영혼의 여정』, 2003
국립청주박물관 편, 『불교동자상』, 솔, 2003
부산박물관, 『민화』, 2007
서울대학교박물관, 『해동성국 발해』, 2003
정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 1 ~ 20, 2000
직지정보박물관, 『직지정보박물관의 유물』, 2003
통도사정보박물관, 『감로』, 2005

3. 조사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21 흥국사 대웅전,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22 무량사 극락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23 송림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25 귀신사 대적광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 문화재관리청, 『전국사찰등소장동자상 조사보고서』, 1991
- 문화재청, 『완주송광사 대웅전 수리보고서』, 2002
- 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2007
- 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II III 편, 2006
- 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전광역시·충청북도편, 2006
- 경상북도,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2006
- 박상국 편저, 『전국사찰소장목판집』, 문화재관리국, 1987

4. 학술지

- 안귀숙·김정희, 『조선조 불화의 연구(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5. 논문

- 강순애, 「영광 불갑사의 복장전적고」, 『사찰조경연구』, 1998
- 구미래, 「백중과 우란분재의 발생기원에 관한 연구」, 『비교민속학』 25집,
_____, 「불교의례 재물의 중층적 의미」, 『종교연구』, 한국종교학회,
2006
- 김갑주, 「17-18세기 한일의 사원경제 비교연구」, 『논문집』 6호, 2007.
- _____, 「해남 대흥사의 보사청 연구」, 『호남문화연구』 제 8호, 1976.
- 김기선, 「조선시대 동자복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5.
- 김길웅, 「불갑사의 불교조각상」, 『사찰조경연구』 제6집, 1998

- 김동욱, 「회심곡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김정희, 「고려말·조선전기 지장보살화의 고찰」, 『고고미술』 157, 한국미술사학회, 1983
- _____, 「19세기 지장보살화의 연구」, 『불교미술』 12, 동국대박물관 1994
- _____, 「고성옥천사 명부전 도상의 연구」, 『정신문화연구』 통권 제32
- _____, 「조선시대 『불설팔관재계비밀구생정토심요』의 시왕판화」, 『미술사학연구』 201
- _____, 「조선조 명종대의 불화연구」, 『역사학보』 110, 1986
- _____, 「조선조후기 지장보살도연구」, 『한국미술사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_____,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 _____, 「조선시대의 명부신앙과 명부전 도상연구」, 『미술사학집』, 1991
- 김태훈, 「한국 지장신앙의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박기용, 「초기불교에서의 효 사상 연구」, 동국대, 2002.
- 박병선, 「조선후기 원당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박은경, 「마본불화의 출현」 『미술사학연구』 199, 200합집, 1993
- 성주탁, 「무녕왕릉출토 동자상에 대하여」, 『백제연구』 10집, 1978
- 송은석, 「17세기 조선왕조의 조각승과 불상」,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 심효섭, 「조선시기 수륙재의 실행과 의례」, 『동국사학』, 동국사학회 2004
- 양한빛, 「한국인의 죽음과 고찰」,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한빛 2004.
- 엄소연, 「조선 후기 동물상징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여은경, 「한국 전통시대의 동자신앙」 『역사교육논집』 권13·14, 1990
- 윤성규, 「조선후기 전남지방 사찰의 목조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윤열수, 「조선후기 산신탕화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위우진, 「조선 후기 한국 사찰의 전각배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강근, 「17세기 불전의 장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 이공술, 「태상감응편의 효사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
- 이정옥, 「관례복식연구」, 『민족문화연구총서』,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0
- 이정화, 「칠장사 오불회괘불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종수, 「조선 후기 염불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현선, 「17세기 명부 시왕상의 양식적 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2003
- 임영애, 「꽃줄과 동자를 통해 본 간다라와 서역의 교류관계」, 『강좌미술사』 25, 2005
- _____, 「한국조각의 동자이미지」, 『동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8
- 임진광, 「불교경전에 나타난 동자상」, 『불교동자상』, 2003.
- 장경희, 「시왕과 권속들의 장엄의물에 관한 도상 연구」, 『한국의 불화』 13, 금산사 본말사편, 성보문화재연구원, 1999
- 장양경, 「19세기 불교 산신도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전성원, 「조선 후기 서남해안지역 사찰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숙영, 「한국의 나한도」, 『한국의 불화』 15 마곡사본말사편(상), 성보문화재연구원, 2000
- 조명렬, 「동자상으로 표현된 불교신앙」 『논문집』, 중앙승가대학교, 1999
- 조순향, 「한구판 시왕경 연구」, 『논문집』 제15집, 경기대학교, 1984
- 최효순, 「불교경전에 나타난 아동선지식과 화엄보살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한연선, 「조선시대 연화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홍선표, 「한국회화사의 아동상」, 『동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8

도판 번호	소재지 ¹⁾	조성연대	재질 ²⁾	크기(cm) ³⁾
1	송림사	1634년	흙	74
2	송림사	1634년	흙	74
3	송림사	1634년	흙	67
4	송림사	1634년	흙	62
5	화엄사	1636년	흙	83
6	화엄사	1636년	흙	86
7	화엄사	1636년	흙	89
8	화엄사	1636년	흙	86.2
9	화엄사	1636년	흙	82
10	화엄사	1636년	흙	89
11	화엄사	1636년	흙	88.8
12	화엄사	1636년	흙	81.5
13	화엄사	1636년	흙	83.6
14	화엄사	1636년	흙	80
15	흥국사	1648년	나무	140
16	흥국사	1648년	나무	142
17	송광사	1640년	흙	99.5
18	송광사	1640년	흙	97.5
19	송광사	1640년	흙	105
20	송광사	1640년	흙	89.5
21	송광사	1640년	흙	94
22	송광사	1640년	흙	94
23	송광사	1640년	흙	103
24	송광사	1640년	흙	109
25	금탑사	1659년	나무	72
26	금탑사	1659년	나무	79
27	불갑사-팔상전	1654년	나무	76.5
28	불갑사-팔상전	1654년	나무	81.5
29	불갑사-팔상전	1654년	나무	91.5
30	불갑사-팔상전	1654년	나무	81

1) 동자상이 배치된 곳이 명부전이 아닐 경우에만 전각 명을 밝혀둔다.

도판 번호	소재지	조성연대	재질	크기(cm)
31	불갑사(팔상전)	1654년	나무	92.5
32	불갑사(팔상전)	1654년	나무	100
33	쌍계사	1666년	나무	80.8
34	쌍계사	1666년	나무	75.9
35	쌍계사	1666년-新造成	나무	78.7
36	쌍계사	1666년	나무	78.2
37	쌍계사	1666년	나무	82.3
38	쌍계사	1666년-新造成	나무	78.7
39	쌍계사	1666년	나무	71.8
40	쌍계사	1666년-新造成	나무	77.4
41	쌍계사	1666년	나무	83.2
42	쌍계사	1666년-新造成	나무	82
43	소재사	1675년	돌	54
44	소재사	1675년	돌	48.3
45	소재사	1675년	돌	52.5
46	소재사	1675년	돌	54.2
47	소재사	1675년	돌	56.5
48	소재사	1675년	돌	53.5
49	소재사	1675년	돌	42.8
50	선운사	1676년	나무	79
51	선운사	1676년	나무	78
52	선운사	1676년	나무	68
53	선운사	1676년	나무	67
54	선운사	1676년	나무	90
55	선운사	1676년	나무	80
56	마곡사	1677년	흙/돌	59
57	마곡사	1677년	흙/돌	65
58	마곡사	1677년	흙/돌	55
59	마곡사	1677년	흙/돌	54
60	마곡사	1677년	흙/돌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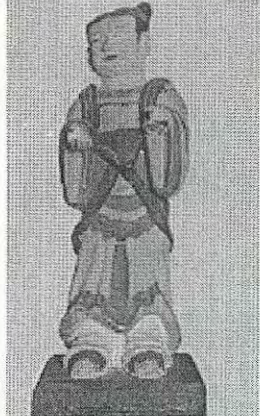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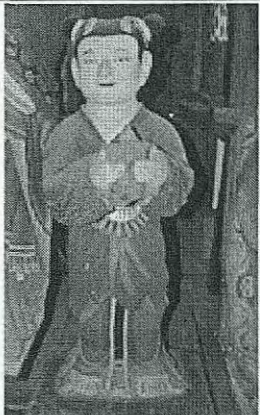
2) 기본적으로 다 채색을 하였다.

3) 여기서 크기는 전체 크기를 말하고, 대좌의 높이까지를 포함한 길이이다.

도판 번호	소재지	조성연대	재질	크기 (cm)
61	마곡사	1677년	흙/돌	55
62	마곡사	1677년	흙/돌	51
63	마곡사	1677년	흙/돌	46
64	마곡사	1677년	흙/돌	55
65	마곡사	1677년	흙/돌	63
66	마곡사	1677년	흙/돌 ⁴⁾	59
67	덕사	1678년	돌	.
68	덕사	1678년	돌	65
69	덕사	1678년	돌	72
70	덕사	1678년	돌	77
71	덕사	1678년	돌	52
72	덕사	1678년	돌	58
73	덕사	1678년	돌	72
74	덕사	1678년	돌	66
75	덕사	1678년	돌	24
76	덕사	1678년	돌	60
77	덕사	1678년	돌	60
78	직지성보박물관	18세기	나무	46.5
79	직지성보박물관	18세기	나무	50.1
80	직지성보박물관	18세기	나무	46.5
81	직지성보박물관	18세기	나무	50.5
82	직지성보박물관	18세기	나무	48.1
83	직지성보박물관	18세기	나무	63.2
84	직지성보박물관	18세기	나무	63.7
85	옥천사	1730년	흙	49
86	옥천사	1730년	흙	44.5
87	옥천사	1730년	흙	44.5
88	옥천사	1730년	흙	42.3
89	옥천사	1730년	흙	48.2
90	옥천사	1730년	흙	46.5

도판 번호	사찰 명	조성연대	재질	크기(cm)
91	옥천사	1730년	흙	49
92	옥천사	1730년	흙	50
93	옥천사	1730년	흙	47
94	해인사	1873년	흙	76
95	해인사	1873년	흙	66
96	해인사	1873년	흙	74.5
97	해인사	1873년	흙	82.5
98	해인사	1873년	흙	70.5
99	해인사	1873년	흙	71
100	해인사	1873년	흙	73
101	해인사	1873년	흙	70
102	해인사	1873년	흙	70
103	흥천사	1885년	흙	39.2
104	흥천사	1885년	흙	50
105	흥천사	1885년	흙	62
106	흥천사	1885년	흙	57
107	구인사정보박물관	조선말-근대	나무	76
108	구인사정보박물관	조선말-근대	나무	67
109	옥량문화재단	19세기	나무	56.5
110	옥량문화재단	19세기	나무	53
111	목인박물관(꼭두)	20세기	나무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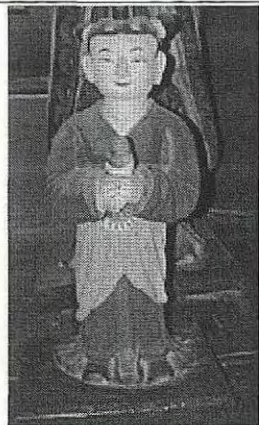
4) 막곡사 동자상의 재질은 보고서(한국의 사찰문화제는 돌), 도록 및 보고서(불교의 동자상, 전국 사찰 등 소장동자상보고서)에는 흙이라고 되어있다.

		
도판 1. 승림사, 1634년	도판 2. 승림사, 1634년	
		
도판 3. 승림사, 1634년	도판 4. 승림사, 1634년	
		
도판 5. 화엄사, 1636년	도판 6. 화엄사, 1636년	도판 7. 화엄사, 1636년.

여 백



도판 8. 화엄사, 1636년



도판9. 화엄사, 1636년



도판10. 화엄사, 1636년



도판 11. 화엄사, 16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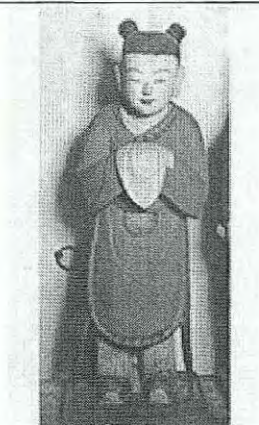
도판 12. 화엄사, 1636년



도판13. 화엄사, 1636년



도판 14. 화엄사, 1636년



도판 15. 홍국사, 164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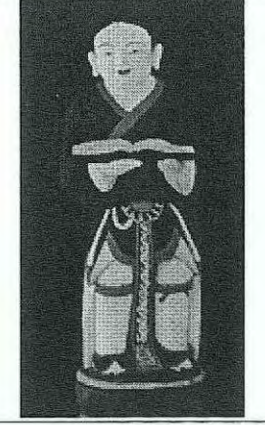


도판 16. 홍국사, 164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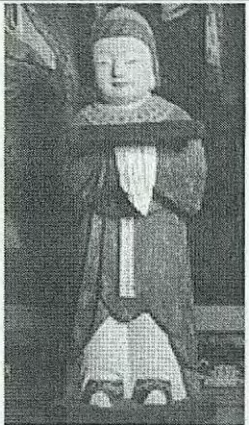
여 백

		
도판 17. 송광사, 1640년	도판 18. 송광사, 1640년	도판 19. 송광사, 1640년
		
도판 20. 송광사, 1640년	도판 21. 송광사, 1640년	도판 22. 송광사, 1640년
		
도판 23. 송광사, 1640년	도판 24. 송광사, 1640년	

여 백

		
도판 25. 금탐사, 1659년	도판 26. 금탐사, 1659년	
		
도판 27. 불갑사, 1654년	도판 28. 불갑사, 1654년	도판 29. 불갑사, 1654년
		
도판 30. 불갑사, 1654년	도판 31. 불갑사, 1654년	도판 32. 불갑사, 1654년

여 백

		
도판 33. 쌍계사, 1666년	도판 34. 쌍계사, 1666년	도판35. 쌍계사, 1666년
		
도판 36. 쌍계사, 1666년	도판 37.쌍계사, 1666년	도판 38.쌍계사, 1666년
		
도판 39.쌍계사, 1666년	도판 40.쌍계사, 1666년	도판 41.쌍계사, 1666년

여 백



도판 42. 쌍계사, 1666년



도판 43. 소제사, 1675년



도판 44. 소제사, 1675년



도판 45. 소제사, 1675년



도판 46. 소제사, 1675년



도판 47. 소제사, 1675년



도판 48. 소제사, 16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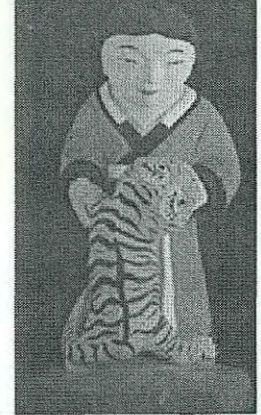


도판 49. 소제사, 1675년

여 백

		
도판 50. 선운사, 1676년	도판 51. 선운사, 1676년	도판 52. 선운사, 1676년
		
도판 53. 선운사, 1676년	도판 54. 선운사, 1676년	도판 55. 선운사, 1676년
		
	도판 56. 마곡사, 1677년	도판 57. 마곡사, 16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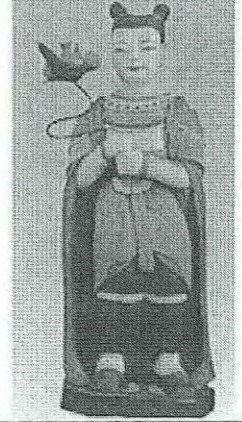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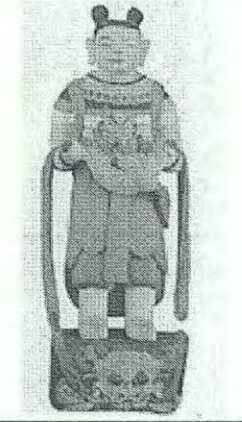
여 백

		
도판58. 마곡사, 1677년	도판59. 마곡사, 1677년	도판60. 마곡사, 1677년
		
도판 61. 마곡사, 1677년	도판 62. 마곡사, 1677년	도판63. 마곡사, 1677년
		
도판64. 마곡사, 1677년	도판65. 마곡사, 1677년	도판66. 마곡사, 1677년

여 백

		
도판 67. 석사, 1678년	도판 68. 석사, 1678년	도판 69. 석사, 1678년
		
도판 70. 석사, 1678년	도판 71. 석사, 1678년	도판 72. 석사, 1678년
		
도판 73. 석사, 1678년	도판 74. 석사, 1678년	도판 75. 석사, 167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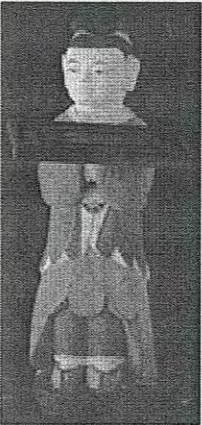
여 백

		
도판 76. 덕사, 1678년	도판 77. 덕사, 1678년	도판 78. 직지성보박물관, 18세기
		
도판 79. 직지성보박물관, (김룡사) 18세기 후반	도판 80. 직지성보박물관, (김룡사), 18세기 후반	도판 81. 직지성보박물관, (김룡사), 18세기 후반
		
도판 82. 직지성보박물관, (김룡사), 18세기 후반	도판 83. 직지성보박물관, (수다사), 18세기 후반	도판 84. 직지성보박물관, (수다사), 18세기 후반

여 백

		
도판 85. 옥천사, 1730년	도판 86. 옥천사, 1730년	도판 87. 옥천사, 1730년
		
도판 88. 옥천사, 1730년	도판 89. 옥천사, 1730년	도판 90. 옥천사, 1730년
		
도판 91. 옥천사, 1730년	도판 92. 옥천사, 1730년	도판 93. 옥천사, 1730년

여 백

		
도판 94. 해인사, 1873년	도판 95. 해인사, 1873년	도판 96. 해인사, 1873년
		
도판 97. 해인사, 1873년	도판 98. 해인사, 1873년	도판 99. 해인사, 1873년
		
도판100. 해인사, 1873년	도판101. 해인사, 1873년	도판102. 해인사, 1873년

여 백

		
도판103. 홍천사,1885년	도판104 .홍천사,1885년	도판105.홍천사,1885년
		
도판106. 홍천사,1885년	도판107.구인사성보박물관, 조선말-근대	도판108.구인사성보박물관, 조선말-근대
		
도판109.옥랑문화재단,19세기	도판110.옥랑문화재단,19세기	도판111. 목인박물관(꼭두), 20세기

여 백

A Research Study on the Buddhist Boy Attendant at *Myungbujon*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Jeong, Sung-Eun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Kyungju University

(Supervised Professor Lim Young-ae)

A Buddhist boy attendant (henceforth BBA) is called *kumara* or *kumakara* in Sanskrit, and is transcribed as *gumara* or *gumagara* in Chinese Characters. Its general meanings are as follows: It refers to a boy being trained to be a Buddhist monk, a son of Buddha who realized the truth, or a heavenly child standing next to Buddhist saints. BBAs carry the image of a child on a lotus flower to be born again in the heaven. They have various names such as *Munsoo*, *Bohyun*, *Sunjae*, and *Myungbujon*. Out of these, *Myungbujon* is also named as the good-and-evil BBA, for his duty of recording good and evil deeds of all human beings. He also functions to offer food to Buddha, while staying near the saints.

The *Myungbu* temple, where the good-and-evil BBA was enshrined, were mostly established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for this. The first reason is that Buddhist rituals were prevalent in that period for the purpose of comforting the common people who were afflicted with physical and mental pains from various wars. The second reason is related to bliss-seeking attitudes of the public caused by the popularization of Buddhism. The third reason is related to the civil virtues of good-seeking principles of Taoism similar to the sense of filial piety of that time. This sense of filial piety were also compatible with the Buddhist ritual of Providence, in which the people prayed for the deceased ones so that they could quickly become reincarnated as good humans or be

born again in the heaven.

Since the 17th century, the general images of BBAs have been two topknots of hair, one piece of long gown worn from the neck all the way down to the ankles, a long scarf worn around the shoulders down to the ankles, a short cover skirt tied around the waist, and items of service for Buddha held in the hands.

The number of BBAs is greater than the other Buddhist statues and their appearances vary from region to region, so the outward looks of BBAs cannot be generalized to one fixed image-frame. As the time passed from the 17th century through the 18th into the 19th century, however, their looks gradually changed into those of real children that people could easily see around them. These various images of BBAs all show the free and innocent looks of children, which are not fixed or tainted by one particular image-frame.

The BBAs, on the other hand, can also be regarded as realistic images most vividly illustr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times. These aspects can be clearly seen in the items held in their hands, most of which symbolize people's desires to be born again in the heaven, protection of the deceased on their path to the heaven, and the elimination of evil things.

The symbolisms of *Myungbujon* BBA as the recorder of good & evil deeds of human beings are: (1) a personal entity of reincarnation prior to receiving a new life after death (2) a prayer for the souls of the dead. Along with these symbolisms as a pure religious entity, the image of the BBA strongly embraces peoples' good-seeking desire of approaching Buddha and conveying their wishes to Him.

The *Myungbujon* BBA deeply soothed with his bright and warm smile the pains of the 17th century people, and helped them overcome the fear of death by showing that a happy life is possible after death in the heaven. Its smiling face made people also smile, and this motivated them to realized the truth that one must practice charities in spite of the hardships of life in the present world. The people who came to get an optimistic view of their lives from the BBA created the *Myungbu* temple as an active life space where a life in the present world is more strongly cherished.